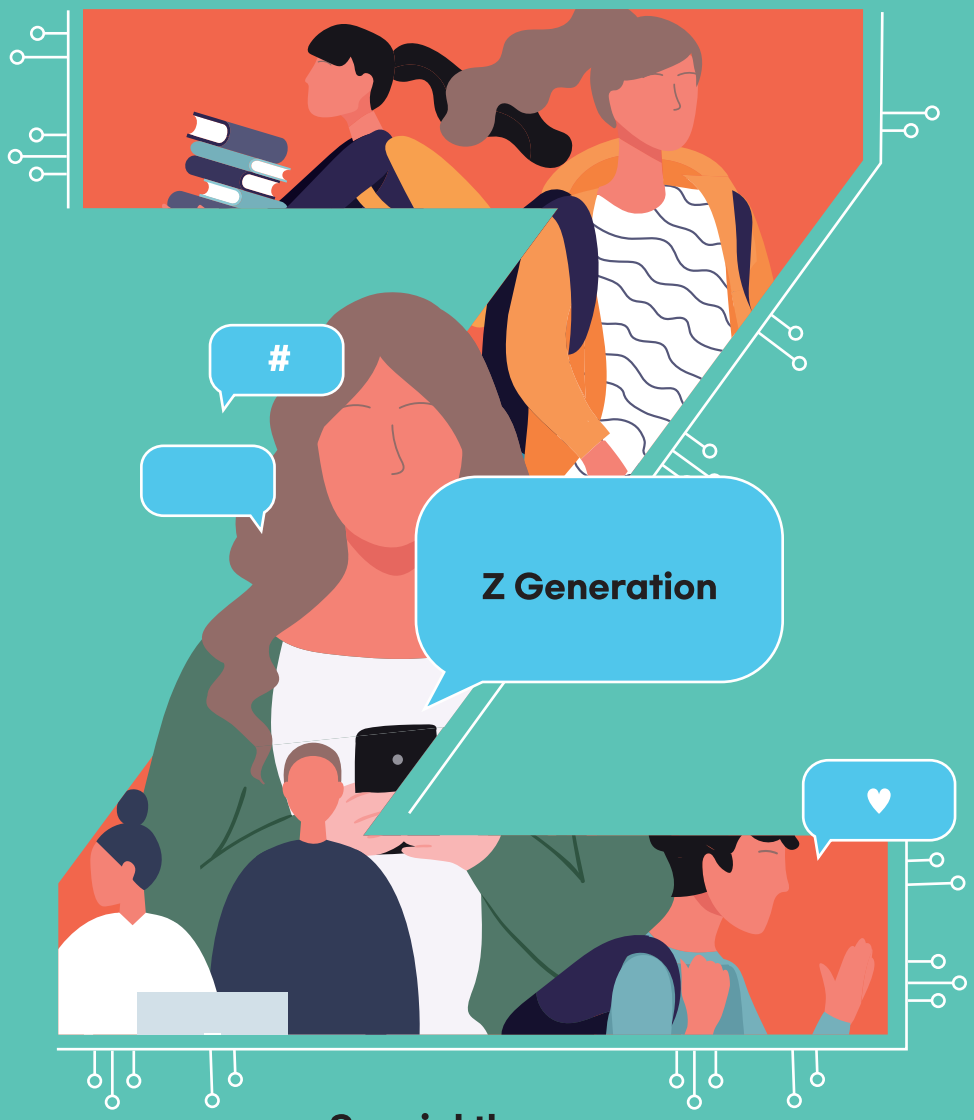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Vol.163
2020 May / June



Special theme

제트세대
찬란한 청춘을 누리다

찬란한 청춘의 봄날을 함께하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청춘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가장 찬란한 동시에 짧게도 느껴지기에 계절상으로 봄에 비유되곤 하죠. 여러분의 봄날, 그리고 청춘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으신지요?

5+6월호 스페셜 테마에서는 현재 20대에 해당하는 '제트세대'의 건강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트(Z)세대는 엑스(X)세대의 자녀 세대를 일컫는 말로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합니다. 20대에서 최근 많이 발병하고 있는 거북목 증후군과 손목 건초염,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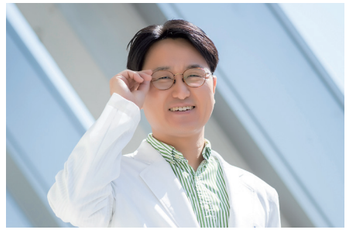
한양토픽에서는 개원 48주년을 맞은 한양대학교병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1972년 개원 이래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념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아온 한양대학교병원의 오늘의 풍경과 내일의 비전을 읽어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질병과 싸우는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오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한양에서는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를 도입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야간 근무를 전담하며 밤낮없이 환자의 곁을 정성껏 지키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싸우며 국민들의 곁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봄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순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최호순







contents

Vol.163 2020 May / June

Life Cycle Guide, 모든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다 ❷

제트세대 찬란한 청춘을 누리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제트세대는 엑스세대의 자녀 세대다. 청년기에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의 정보를 전달한다.

02 **즐거운 편지** 찬란한 청춘의 봄날을 함께하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민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교수

08 **Dynamic Hanyang** 코로나19 감염관리 위원과 함께 맞는 한양대학교병원 48주년의 역사

14 **Special theme ❶** 계속되는 목과 어깨 통증, 수술해야 할까?

16 **Special theme ❷** 스마트시대 제트세대의 새로운 질병

18 **Special theme ❸** 건강한 미래로 가는 첫 걸음, 자궁경부암 예방

20 **Hanyang Topic**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과 폐암

26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병원 협력기관 성동구보건소

28 **Dr. Opera** 루드비히 판 베토벤 오페라《피델리오》

30 **Dr. Movie** 판옵티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32 **예술과 의술의 만남** 도스토예프스키와 측두엽 뇌전증

34 **고마운 당신에게** 이비인후과 정진혁 교수와 환자 안승준 군의 편지

36 **주목할 만한 연구** 아침 혈압 상승과 망막정맥폐쇄

38 **언론 속 한양인**

40 **한양뉴스**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물품 전달식' 개최 외

43 **Hihy 건강저장소**

44 **발전기금**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20년 5월 13일 통권 163호 **발행인** 최호순 **편집인** 이항락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슬기로운 안과 의사, 그가 밝히는 길과 지도

강민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교수

누군가 바지런히 걸은 곳은 길이 된다.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걷고, 뒤따라오는 이들을 살뜰히 안내하는 선배의 마음은 후배들에게 지도가 된다. 안과 의사 강민호가 걷는 길은 바람직한 지도가 되어 더 많은 이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글. **권찬미** 사진. **김지원**

"〈능하신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환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수술하는 의사의 모습이 담긴 그림인데요. 대학 시절 한창 전공 선택을 고민할 때 이 그림을 보고 '현미경을 이용해 환자의 눈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에 매료된 강민호 교수는 '현미경을 이용해 수술하는 안과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마침 전공의 시절 만난 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송병주 교수는 그의 눈에 들어온 하나의 길이었다. 그렇게 안과 의사의 길에 접어든 지 전공의와 펠로우 기간 포함 19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2011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10년 차에 이른다.

어두운 눈을 밝히는 능한 손

안과는 진료과 특성상 드라마틱한 수술케이스가 많다. 그중에서 그가 기억하는 환자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만난 환자였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수술 후 각막 부종이 찾아와 수포성각막병증으로 각막 기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제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와서 처음으로 맡은 각막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당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각막이식수술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첫 각막 수술 사례이며, 환자에게



는 남은 인생의 시력이 달린 의미 깊은 수술이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환자분께서 건강한 시야를 회복하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이제는 여든이 넘으셨는데요. 아직도 6개월 주기로 꾸준히 내원하십니다. 내원하시어 건강하게 눈을 맞출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가 꿈꾸는 배움의 길과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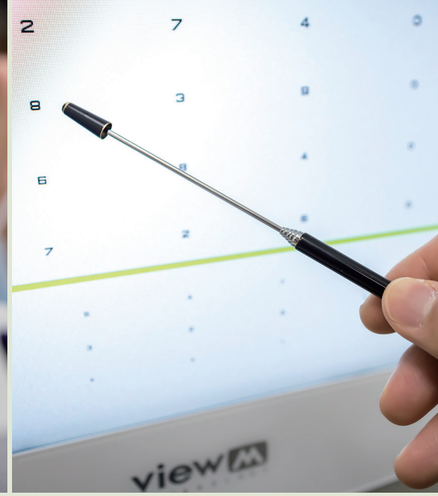
강 교수는 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의료 기술을 잘 전하는 좋은 의사다.

"의사라고 하면 타고나야 한다는 선입견이 많아요. 수술을 잘하려면 타고난 손 기술이 좋아야 한다는 편견도 있달까요. 하지만 저는 수술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대한안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비디오상을 수상한 강민호 교수. 수상한 영상은 〈초보자를 위한 백내장 수술에서 수술 현

안과 수술은 모두 현미경을 보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술 시 손의 움직임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로 손의 고유 감각을 믿고 움직이며 수술하죠. 이 단계에서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전공의들이 좌절하기 쉬운데요. 전공의들이 학습을 통해서도 수술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미경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전공의들이 더 쉽게 수술을 배울 방법을 고민하다가 제작했다. 일반적으로 학술자료로 사용되는 비디오는 눈과 수술 도구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으로는 수술을 훈련하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에 진료팀과 함께 의논해 손까지 나오는 영상 학술자료를 제작했다.

"안과 수술은 모두 현미경을 보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술 시 손의 움직임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로 손의 고유 감각을 믿고 움직이며 수술하죠. 이 단계에서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전공의들이 좌절하기 쉬운데요. 전공의들이 학습을 통해서도 수술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학술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는 강민호 교수는 미국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대학에 1년여의 연수를 떠났다가 '원추 각막 질환'에 대한 연구 모델을 만들고 지난 3월 돌아왔다. 국내에서도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발병하는 원추 각막 질환은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앞으로 제 목표는 원추 각막 질환에 대한 동물실험 모델을 2~3년 안에 잘 마무리 지어서 실제 수술적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후배들을 위한 운동학습 연구를 체계화해 더 좋은 학습적 자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료하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능한 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연을 넓히며 부지런히 완성 중인 그의 지도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의 앞길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곁의 영웅들

코로나19 감염관리 위원과 함께 맞는 한양대학교병원 48주년의 역사

난세의 영웅은 슈퍼 히어로 한 사람이 아닌 수많은 개인이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념으로 48년째 아픈 이들을 돌보는 우리 곁의 영웅들은
오늘도 조용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글. **권찬미** 사진. **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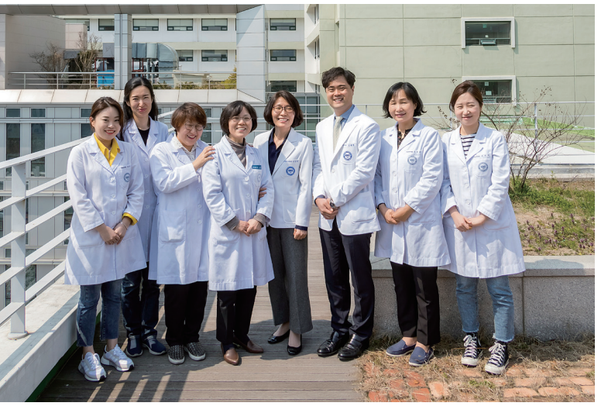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5월 3일 개원기념일을 맞았다. 개원 이래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질병과 부단히 싸워온 한양대학교병원의 개원 48주년 풍경은 '사랑의 실천'과 정확히 부합하는 모습이었다.

"한양대학교병원 감염관리 위원회가 매주 3회 이상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전이 될 것을 대비하는 플랜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 사회 전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 지휘하는 윤호주 병원장의 목소리가 사뭇 비장했다. 국민안심병원인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선별진료소와 안심진료소를 설치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는 진료소이고, 안심진료소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까지는 아니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위한 진료소이다. 두 단계로 나누어진 진료소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뿐아니라 일반 외래 환자들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두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로 모범이 될만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아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 진료과의 의사와 간호사, 교수님들까지 참여해 국민안심병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전이 될 것을 대비해 더욱 철저하고 세심하게 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구경북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하기도 하고, 중증 확진자를 받아 음압 병동에서 완치가 될 때까지 돌보는 등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더 큰 50년을 함께 바라보고 준비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병원에서 치료한 대구경북지역 중증 환자는 다수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정도의 80세 중증 환자도 계셨는데요. 2주간 집중 치료한 끝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등 성공적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환자분들도 2주간 집중 치료를 통해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의 10배 이상의 치사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률보다 회복률에 집중해서 서로 감염되지 않도록 원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대감염 사태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지역 환자의 치료를 맡은 감염내과 배현주 교수가 말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과 감염관리 위원들은 피로해 보였지만 치료에 대한 의지가 또렷했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환자를 지켜내고자 하는 목표가 선명했다.

더 큰 50년을 준비하며

2022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할 한양대학교병원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윤호주 병원장은 다가올 100년을 대비하는 핵심은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이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의과대학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좋은 인력을 확충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연구중심의 병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혁신형 의사과학자 사업에 선정되었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사업, KIST 사업, BK4 사업 등을 통해 의대와 공대, 자연과학대 교수들이 함께 초융합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디지털의료융합 대학원 과정을 신설해 우수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서울지역 1위를 차지하며 중증응급질환 치료를 잘하는 병원임도 공고히 입증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적극적인 협조로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교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 동남권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라는 핵심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해 더 큰 미래의 50년을 준비하고 웅비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곁의 영웅들이 환자들을 위해 생동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의 노력이 다가올 50년에 어떤 결실을 맺을지 함께 기대해본다.



Special theme

Life Cycle Guide, 모든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다 ❷

제트세대 찬란한 청춘을 누리다

20대는 흔히 인생의 황금기로 비유된다.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며 용기가 넘치는 청춘은 엑스세대, 와이세대 등의 계보를 거쳐 오늘날 제트세대에까지 이르렀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은 한없이 건강할 것 같지만 이 시기에도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들은 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되거나 미처 예방하지 못한 질병이 커지기 때문. 제트세대에게 위협이 되는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사회,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의 방식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



긍정 응답

53.6%

출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가족, 주변인의 의견보다는 나의 만족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긍정 응답

52.9%

거북목 증후군 진료 환자 연령

(1,134명 대상)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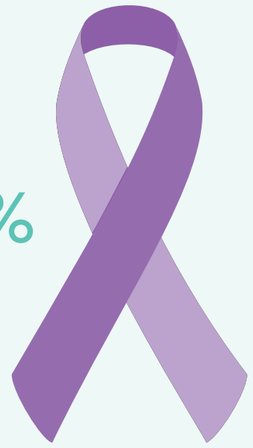
23.4%

30대(20.4%)
40대(18.3%)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2015년 통계

20대 자궁경부암 환자

65.1% 증가



2014년 2,041명 → 2018년 3,370명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드퀘르벵병 환자

2030 환자

2010년 1만 6,2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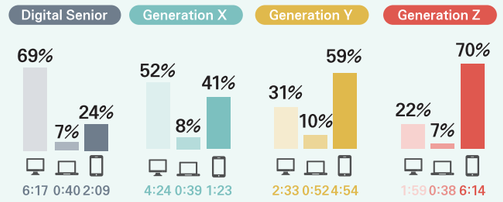
2016년 **2만 1,143명**

국내 환자 전체

2007년 9만 5,622명

2016년 **17만 4,763명**

세대별 각 미디어 디바이스 이용 시간 비중



(단위: 시간:분) *Source: Nielsen-Koreanclick 3Screen Data (2017.02)

모바일 이용시간: 조사 기간 내 각 디바이스 사용자의 총 이용시간, 모바일 이용시간은 런처를 포함



가원

제트세대, 찬란한 청춘을 누리다

01
계속되는 목과 어깨 통증, 수술해야 할까?

목디스크와 거북목 증후군



글. **전형준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경추 질환의 발병 원인과 현황

경추는 7개의 뼈가 여러 종류의 인대와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가장 큰 부분인 추체 사이에 디스크라는 물질이 놓여 있다. 뼈는 형태학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디스크는 경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목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구조가 된다. 목 부위는 정상적으로 옆에서 보면 C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 경추와 요추에서는 C자 형태를 가지게 되고 흉추에서는 역 C자 형태를 가지게 된다. 우리 몸은 신경과 뼈가 성장 속도가 다른데 뼈의 성장이 신경의 성장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 보니 신경의 성장에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목의 형태가 C자 형태가 되면 디스크가 경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을 조금씩 나누어 하지만 일자 형태가 되면 똑같은 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즉, 정상적으로 C자 형태를 가지게 되면 디스크와 신경 그리고 척수 신경 사이에 정상적인 공간을 형성해 웬만한 디스크가 나와도 증상이 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역 C자 형태를 가지게 되면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작은 문제가 있어도 증상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대부분 척추의 형태는 학창 시절에 성장이 마무리된다. 정상적인 C자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목을 약간 드는 자세가 좋은데 요즘 학생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척추의 성장 과정에서 역 C자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추 관련 질환으로 인한 진료 인원은 2011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약 16.6% 가량 증가했으며 경추 디스크 및 경추통의 경우 62%가 40~60대 중장년층인 반면 인터넷과 IT 기기 보급에 따른 스마트폰, 태블릿 PC, 인터넷 과의존으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은 61%가 10~30대라는 결과가 나왔다. 즉, 젊은 연령에서 목디스크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조 증상인 거북목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추부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신경부터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척수 신경까지 주요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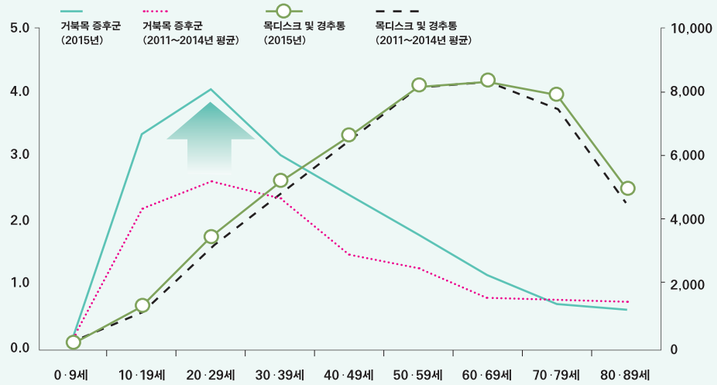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목이 몸의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목에 걸리는 하중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증가하고 이는 경추, 어깨주위 근육에 과도한 긴장 상태를 유지시켜 뒷목, 어깨 통증과 후두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경추 질환의 예방과 치료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등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장시간 취할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기에 눈높이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꾸준하고 잦은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추 질환의 증상은 초기에는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목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로 인해서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다만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나와 팔이 저리고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중추 신경의 압박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팔다리의 마비도 발생하게 된다. 경추부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신경부터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척수 신경까지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다. 작은 신경이 눌리게 되면 주로 통증과 저린감이 나타난다. 약물치료나 신경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다시 재발하게 되므로 수술적인 제거가 필요하다. 초기 증상이 위약감이나 마비가 있다면 이는 척수 신경의 압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추후 마비가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보존적인 치료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모든 척추 수술은 마지막 방법이 되어야 한다. 즉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신경 치료 등을 시행한 후에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척추 수술의 경우 수술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예기치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부 환자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반드시 수술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 경우라면 수술의 합병증 발생 확률이 있더라도 수술하는 것이 추가적인 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은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나 마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선 마비나 위약감이 있고 척수 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정도의 압박이 있다면 이는 수술한 후에 재활치료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트세대, 찬란한 청춘을 누리다

02
스마트시대 제트세대의 새로운 질병

드퀘르벵병



글. **이창훈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요즘 진료를 하다 보면 손목 건초염 증상을 호소하는 젊은 환자가 많아졌다. 질환명은 드퀘르벵병(de Quervain's disease)으로 드퀘르벵은 스위스 의사의 이름이다. 프리츠 드퀘르벵(Fritz de Quervain)은 이 질환을 중년의 여성들에게서 발견하고 1895년 학계에 보고했다. 당시에는 세탁기가 없어 손빨래를 해야 했고, 가사일을 도맡아 하던 중년 여성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최근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여성, 40세 이상, 흑인이 이 질환의 위험 인자다. 모두 손을 많이 쓰는 집단이다. 그런데 왜 최근 20대가 많아졌을까?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젊은 학생들이 드퀘르벵병으로 병원을 찾는 빈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즉 드퀘르벵병은 손을 많이 사용할 때 특히 엄지를 많이 사용할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드퀘르벵병의 증상과 발병

손에서 엄지를 펴는 힘줄은 크게 3개다. 이름도 어려운 장무지 신전건(EPL), 단무지 신전건(EPB), 장무지 외전건(APL)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단무지 신전건과 장무지 외전건은 하나의 통로를 통해 전완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엄지를 사용하는 일이 잦아지면 통로에 협착이 발생하고 순차적으로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이 유발된다. 단무지 신전건과 장무지 외전건이 통과하는 통로를 제1신전 구획(First Extensor Compartment)이라고 하는데 이 통로는 신전 지대(Extensor Retinaculum)로 덮여 있다. 정상적인 사람은 신전 구획 내에 2개의 힘줄 외에 별다른 구조물이 없다. 그러나 해부학적으로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신전 구획 내에 중격(Septum)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의 통로를 둘이 공유하는데, 중앙 분리대까지 있으니 더욱 비좁은 환경이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장무지 외전건이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하나의 통로를 둘이 나누어 써도 비좁은데, 가운데 중앙 분리대를 두고, 한쪽에는 여러 개가 지나다니면 얼마나 비좁겠는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엄지를 많이 사용하면 협착이 쉽게 발생할 것이고, 드퀘르벵병은 이 같은 상황



손목의 건초염, 드퀘르벵병은 손을 많이 사용할 때 특히 엄지를 많이 사용할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세대별 각 미디어 디바이스 이용률[1]

	Digital Senior	Generation X	Generation Y	Generation Z
	97.9%	94.4%	90.3%	88.6%
	39.9%	76.4%	91.7%	87.7%
✓	50.4%	81.6%	95.3%	92.7%

[1] 디바이스 이용률: 각 연령 그룹 추계 인구 중 조사 시작 지점 기준 직전 1개월 동안 1회 이상 해당 디바이스를 이용한 사람의 비중

*Source: Nielsen-Koreanclick 제41차 모집단 추정조사 보고서 (2017.01)

에서 발병한다. 드퀘르벵병이 발생하는 환자 중 해부학적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80%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드퀘르벵병의 진단과 치료

진단은 매우 간단하다. 특별한 검사 도구를 요하지 않아 방법만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손을 쓸 때 손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다른 부위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제1신전 구획이 위치한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면 드퀘르벵병이라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엄지를 손 안으로 위치시키고 주먹을 쥔 뒤 주먹을 척측(새끼손가락 쪽)으로 향하게 할 때 손목의 통증이 유발되면 진단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물론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는 드퀘르벵병과 함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으니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진다. 증상이 오래되지 않은 젊은 환자는 우선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데, 엄지를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소염제를 처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한다.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엄지의 움직임 제한이다. 하지만 손의 기능에서 40~50%를 담당하는 엄지를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경구 소염제를 처방하고,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하곤 한다. 약물에 의해 염증이 가라앉고 협착이 완화되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의 효과는 훌륭하지만 주변 피부의 탈색, 피하지방 위축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해부학적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나 당뇨가 있는 경우는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재발이 흔하다. 이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데, 국소마취 하에 제1신전 지대를 절개하는 수술을 시행한다. 이 수술은 5분가량 소요되고, 2cm가량 절개하므로 입원을 할 필요가 없고, 수술 당일부터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 신전 지대를 절개하여 협착은 수술 후 즉각적으로 해소되지만 힘줄 주변의 염증은 서서히 가라앉으므로 수술 부위 통증은 1개월가량 지속된다. 협착이 사라졌으므로 수술 후에 엄지를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이 염증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으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수술 후 합병증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수술 시 천부요골신경을 손상시키면 엄지의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신전 지대나 중격의 완전한 절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상이 호전되기 어렵다.



제트세대, 찬란한 청춘을 누리다

03
건강한 미래로 가는 첫 걸음 자궁경부암 예방

자궁경부암의 발병과 예방 접종



글. **정언석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산부인과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처럼 명확한 원인과 예방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궁경부암은 여성암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의 건강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젊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현황

자궁경부암은 산부인과에서 진료하는 부인암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한 해 3,500명 정도가 진단되고, 900명 넘게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다. 2016년 국가암등록사업 통계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분류했을 때 자궁경부암이 가장 흔한 연령은 40대이며, 20대에서는 전체 여성 연령군에서 3.6%가 발생한다. 또 15~34세 여성에서 갑상선, 유방암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하게 발병하는 암으로 결코 젊은 여성들에게 드문 암이 아니다.



자궁경부암의 발생원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

흔히 자궁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을 일컫는다. 북미가 자궁체부암이 더 흔한 것에 비해서 동양에서는 자궁경부암이 더 빈발하기 때문이다. 자궁경부는 자궁의 입구 부분에 해당하며 자궁체부 아래로 목처럼 생겨서 자궁경부 혹은 자궁목이라고 하는데, 자궁체부와는 달리 편평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궁경부는 성관계 등으로 외부와 접촉하게 되며, 이 때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의 감염은 E6, E7 유전자변이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자궁경부에 이형성세포가 생성된다. 이 이형성세포가 축적이 되어 기저막을 뚫고 침윤하면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궁경부암 발생의 93% 이상이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이 있으며, 부인암 중에서 유일하게 외적 원인이 분명한 암이라고 할 수 있다.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일생에 한 번은 생식기 HPV에 감염되고, 80% 이상의 여성이 50세 이전에 감염된다. 감염률이 높은 연령대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극초기단계인 미세침윤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궁절제술을 포함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18~28세로 알려져 있다. 성경험의 나이가 낮아질수록 20대의 나이에 HPV 감염과 자궁경부암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PV 검사는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처럼 직접 채취를 통해 검사할 수 있으며, 자궁경부암과 가장 관련이 높은 16, 18번을 포함한 아형(Type)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검사는 감염여부 및 HPV 종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질확대경검사의 시행여부, 추적관찰 주기 등을 결정하는 진단 과정의 기준으로 역할을 한다.

젊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치료와 후유증

자궁경부 전암단계를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이라고 한다. 이 자궁경부상피내종양 2~3단계에서는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를 권하게 된다. 치료는 자궁경부 원추절제술, 레이저기화술 등이 있고, 과거에 많이 시행하던 냉동 치료는 현재 권하지 않는다. 자궁경부상피내종양의 병변이 변형대 내에서 존재하고 조준 생검에 의해 확인이 된다면 레이저기화술로 충분히 치료가 이루어지지만, 질확대경검사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나 0기암이라고 말하는 자궁경부상피내암의 경우 원추절제술을 받게 되는데 절제된 부위만큼 자궁경부 길이는 짧아진다. 추후 임신을 하게 된다면 임신 유지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짧아진 경부로 인해 자궁경부무력증이 발생하게 된다. 자궁경부무력증이란 자궁수축이 없음에도 자궁경부가 열려 조산 및 유산을 초래하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다음 임신 때 임신중기로 넘어가기 전 자궁경부를 묶어주는 일반적으로 '맥수술', '맥도날드수술'로 알려진 자궁목원형묶음수술을 시행한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역할

자궁경부암 검진은 백신투여를 통한 적극적 예방을 고려해야 한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인유두종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이용한 정제 바이러스유사입자(Virus-like Particle)로부터 만들어진 비감염성 재조합 백신이다. 이것이 마치 감염이 된 것처럼 체내에서 면역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게 하고, 형성된 항체는 나중에 HPV가 들어오더라도 방어한다. 2가 백신과 4가 백신은 국가예방접종(NIP)에 포함되어 '건강 여성 첫걸음' 예방주사로 만 12세 여아는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 접종의 방법

자궁경부암 예방 4가 백신의 접종 대상은 9~26세 사이의 여성에게 0, 2, 6개월 3회 접종을 시행하고, 2가 백신의 접종 대상은 9~25세 사이의 여성에게 0, 1, 6개월 3회 접종을 시행하며, 최적 접종 연령은 15~17세이다.
인유두종바이러스 9가 예방백신은 2가나 4가처럼 3회 접종(0, 2, 6개월)을 시행하며, 만 9~14세 여성 및 남성에서는 2회 접종(0, 6~12개월)을 시행한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

“Life doesn’t always turn out the way you planned.”

영화 〈당신이 잠든 사이에〉 속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명대사는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일상을 표현해준다. 매주 바뀌는 3교대 업무 스케줄은 밤낮을 바꾸도록 했고, 계속되는 심적·신체적 변화에 지친 간호사들은 계획에 없던 퇴사라는 선택지를 집어 들곤 했다. 대학병원 신입 간호사 퇴사율 35.8%*의 시대, 간호사들의 워라밸을 고민하는 병원에게 정부가 내민 카드는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였다.

정리. **권찬미** 사진. **김지원**

*2018년 사립대 10곳, 국립대 2곳 부속병원의 1년 차 간호사 평균 퇴사율

질병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모두가 잠든 새벽,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찾노라면 대학병원을 손에 꼽을 수 있다. 늦은 밤 그림자처럼 병동을 돌며 환자의 상태를 보살피는 간호사가 언제나 존재해온 이유다.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근무 형태로 흔히 알려진 3교대는 8시간을 기준으로 업무가 돌아간다. 각각 DAY(오전 7시~오후 3시), EVENING(오후 3시~밤 11시), NIGHT(밤 11시~오전 7시) 근무로 나누어진다. 그중에서도 생활 리듬이 완전히 바뀌는 NIGHT 근무는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시간대였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야간 근무 전담을 맡은 간호사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다.

“육아나 공부를 위해서 낮 시간을 확보하고픈 분들에게 좋아요. 보통 3 NIGHT, 3 OFF 스케줄이 나오는데 다른 타임 근무보다 변동 가능성이 적은 일정한 패턴의 스케줄이라 개인 시간을 잘만 활용한다면 좋은 듀티라고 생각해요. 주 3일의 휴무를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는 점도 좋죠. ”

“야간 근무는 비교적 고정적인 멤버들이 근무하는 편이라 업무 능률이 좋은 편입니다. 덕분에 척하면 척 알아듣고, 함께 근무할 수 있죠. 야간 근무 덕분에 친밀해진 선생님들과 얼마 전에는 여행도 함께 다녀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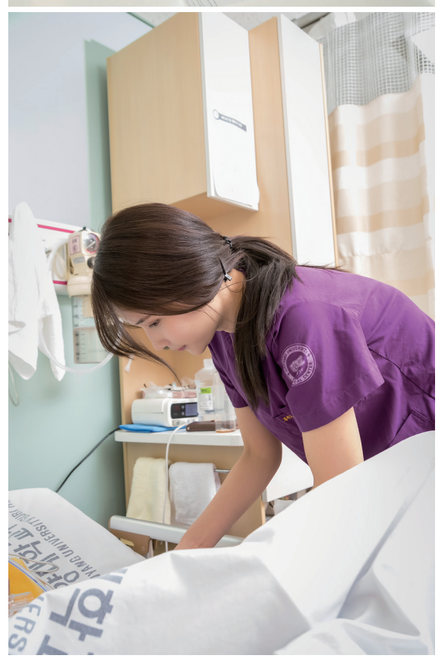
“가장 큰 장점은 급여인 것 같아요. 야간수당 덕분에 주간 근무 1.5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5년 차 동기로 함께 동고동락하는 원소원 간호사와 이성미 간호사가 웃으며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의 장점에 대해 답했다. 이에 공감하던 13년 차 김영선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 장점이 확실한 만큼 단점도 있어요. 3일의 업무 시간과 3일의 휴일이 밤낮이 완전 뒤바뀌기 때문에 3 OFF 중 하루는 거의 종일 잠만 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첫 휴무날은 약속을 잡기 힘든데,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생활 패턴을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번에도 모두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장점도 단점도 확실한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는 지난해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는





퇴사율이 높은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일과 삶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많은 대학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밤 11시에서 오전 7시까지의 근무 시간대인 NIGHT 근무 전담자를 지원 받아 운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가 신설되고,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수가도 개선되었다. 이러한 정부와 병원의 노력은 지금 어느 단계쯤 왔을까?

간호사들의 '워라밸'을 위하여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는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되어 주·야간 간호사 모두 근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간호사 중에서 선발해 야간 근무 전담 항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에도
스트레스받지 않고
더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맞춰
야간 전담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ini interview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밤낮이 없습니다



신순교 간호국장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를 잘 정착시켜 일과 삶을 양립하고자 하는 젊은 간호사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주겠습니다.

야간 전담 간호사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원소원 간호사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도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야간 전담 간호사들이 항상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을 기억해주세요.

신순교 간호국장이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개원부터 함께하며 올해 30년 차에 접어든 베테랑 간호사다. 신 간호국장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던 1980년도에는 7 NIGHT 근무에 2 OFF 스케줄로 일한 적도 있었다고 하니 당시에 비하면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IGHT 근무 간호사들이 가지는 부담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낮밤이 바뀌는 신체 사이클의 문제뿐 아니라 주간 근무에 비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주치의 선생님이 적어 심적 부담도 클 수 있죠. 힘든 근무 여건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기에 적극적으로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간호사 옆 건강한 환자

신순교 간호국장은 실제 야간 근무 중에 NIGHT 근무 인력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중년 남자 환자분에게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려던 차에 심정지가 발생한 것. 야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모두가 잠든 밤, 신 간호국장은 당시 함께 있던 의사와 열성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끝내 환자의 생명을 지켜냈다.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에는 밤낮이 없고, 대학병원은 언제나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우리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에도 스트레스받지 않고 더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야간 전담 근무를 운영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신규 간호사가 많이 들어와 다양한 근무 방식을 시도하고 정착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신 간호국장의 표정에 간호사들을 향한 애정이 묻어났다.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덕분에 환자들은 오늘 밤도 안전할 것이다.

폐암 말기 시련의 한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다

개그맨 김철민과 폐암

27년간 대학로에서 노래하던 사나이 김철민은 언제나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개그맨으로서 가수로서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폐암이란 시련은 결코 그의 노래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정리. **편집실**

개그맨 김철민은 MBC 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2007년 TV 예능 프로그램 〈개그야〉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김철민 씨. 그는 개그맨으로 데뷔하기 이전인 1989년부터 27년간 대학로에서 거리 공연을 해온 팔방미인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019년 허리 통증을 느껴 쓰러진 후 병원에 내원한 그는 폐암 4기를 선고받았다. 이후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등의 행보로 주목을 받으며 그간 치료에 전념했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투병 소식에 동료 개그맨들의 응원은 뜨거웠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동료 개그맨 유재석이 조세호, 남창희와 함께 그가 입원 중인 병원을 깜짝 방문해 병원비가 담긴 봉투를 기부하며 훈훈한 동료애를 드러냈다. 이에 김 씨는 "마르고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연락을 끊고 있었는데, 그냥 왔다더라"며 "우연히 병원에서 마주쳤는데, 봉투까지 줘서 놀랐고 정말 감동했다. 5개월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다"며 감동했다는 후문이다. 그 외에도 동료 개그맨 박명수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소설가 이외수도 SNS를 통해 김철민에 대한 후원을 호소했다.

그의 간절한 삶에 대한 의지가 통한 걸까. 2020년 현재 그는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다. 3월 말에는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에 깜짝 출연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노래를 전했으며, 지난 3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으로 지난달 26일 조그마한 요양원으로 옮겨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하루 몸이 좋아지고 있어서 다가오는 5월엔 대학로에 서겠다. 나에게 최고의 항암은 여러분"이라고 남기며 자신을 응원하는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27년간 불렀던 그의 희망의 노래가 대학로에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한다.

폐암의 치료와 조기 검진의 중요성

글. **손장원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폐암은 기관지나 폐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암이 주는 공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암이라 할 수 있다. 발생 빈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남성에서 위암에 이어 2위, 여성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 사망자 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남녀 공히 1위를 점하고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암이다.

흡연은 가장 대표적인 폐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폐암의 약 70%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의 위험이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연을 함으로써 폐암 발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약 5년째부터 폐암 발생의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5년 정도 금연한다면 폐암 발생의 위험도를 비흡연자와 비슷한 정도로 낮출 수 있다. 간접흡연자도 비흡연자에 비하여 1.5~2배 정도 높은 폐암 발생의 위험도를 가지게 된다. 폐암 발생의 위험은 흡연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 높으므로 금연이 폐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에서도 폐암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비흡연자 폐암의 원인으로는 간접흡연, 라돈,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직업적인 발암 물질의 노출, 유전적 소인 등이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기 폐암 검진의 방법과 치료

폐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완치가 가능한 조기 진단 환자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80%는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고, 전이가 이미 발생한 4기로 발견되는 환자도 40% 이상 된다. 또한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조기 폐암 환자라도 약 30~40%에서 재발하는 점 역시 폐암의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근본적으로 폐암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기에 폐암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폐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폐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잘 알려진 폐암 고위험군은 담배를 많이 피운 경우(보통 30갑년 이상)와 나이가 많은 경우(보통 55세 이상)이다.

폐암의 조기 검진 방법은 매년 저선량 흉부 CT를 촬영하는 것이며,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치료 방법에는 전통적으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가 있고, 최근에는 차세대 표적항암제가 도입되고 새로운 면역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에만 많이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유전자 변화를 표적으로 삼아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항암제이며, 기존의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 또한 면역관문억제제라 불리는 면역 치료제도 개발되어 폐암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 새로운 약제의 도입은 완치가 불가능했던 말기 폐암 환자의 삶의 질도 많이 개선시키고 있다.

베스트 파트너

CONTROL TOWER OF SEONGDONG

한양대학교병원 협력기관 / 성동구보건소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중요하다.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선언된 상황에서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성동구보건소의 존재는 그래서 더욱 귀하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의 최전선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성동구보건소를 만나보았다.

글. **권찬미** 사진. **김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차려진 성동구보건소 입구는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다. 온도를 체크하고 방문 목적을 밝힌 뒤 내부로 들어서자 노란 민방위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이 분주히 전화를 받으며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하죠. 성동구보건소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협업해 성동구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이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조목조목 답을 했다.

성동구보건소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성동구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수는 서울시 지역구 내에서 15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에 김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동구 주민분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분들의 동선을 체크해보면 대부분 철저히 격리 생활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잘 쓰는 등 우수한 대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자원봉사를 자처해 자발적으로 방역을 돕거나 마스크를 만들어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는 등 선행도 베풀고 계십니다. 덕분에 성동구보건소에서도 방역 체계의 큰 구멍 없이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동구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도 보건소로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은 김 보건소장은 3교대로 24시간 일하며 함께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때 심각해졌을 때는 김 보건소장이 먼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윤호주 병원장에게 '코로나19 지역 감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그만큼 위기 상황에 있어 병원과 보건소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양대학교병원은 성동구보건소의 큰 힘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차려지는 선별진료소를 한양대학교병원에서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빠른 선별 진료가 가능했다. 김 보건소장은 "한양대학교병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에 성동구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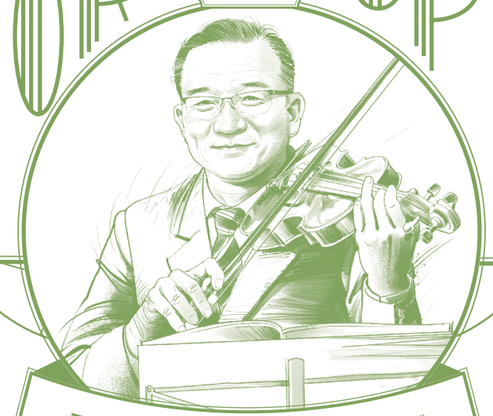
성동구보건소와 한양대학교병원의 인연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1998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002년 치매안심지원센터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위탁하면서 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한양대학교병원과 함께 운영하는 2개 센터 외에도 성동구보건소에는 8개의 센터가 더 있다. 총 10개의 센터 중 4개의 센터는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치매안심지원센터는 의료 보험이 되지 않아 성동구 재원으로 직접 운영을 시작했으며,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동구를 위해 오늘도 밤새 근무하는 성동구보건소의 목표는 무엇일까?

"성동구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질 다양한 케이스의 시나리오를 짜두었습니다. 계속해서 구민분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감염으로부터 구민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나아가 GPS, AI 스피커 등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에 힘쓰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주민들의 건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다방면에서 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노력할 것입니다."

성동구보건소 위치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문의** 02-2286-7000

DOCTOR OPERA

닥터 오페라



루드비히 판 베토벤 오페라《피델리오》

van Beethoven Opera <Fidelio>

베토벤의 이상형인 여성상을 그려

모든 음악 장르에 방대한 작품을 남긴 베토벤이 일생동안 오페라를 단 한 편만 남긴 것은 아이러니다. 이런 배경을 추측해보자면 베토벤 이상에 맞는 대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던 직후 베토벤은 독재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자유주의 정신에 공감하였다. 그는 많은 오페라가 즐겨 다루는 통속적인 주제보다는 프랑스 혁명으로 상징되는 자유, 평등, 박애주의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오페라를 원했고, 이 작품에는 그의 의지를 충실히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오페라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유명한 정치 단체인 자코벵의 한 회원이 감옥에 갇히자 그의 아내가 직접 남장을 하고 남편을 구출했다는 실제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여자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절개와 애정이 이 오페라의 주제인 것이다. '피델리오'라는 뜻도 영어 'Fidelity'로 충실하다는 뜻으로 '배우자에게 충실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지조 있는 남자'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용감한 희생을 자청하는 레오노레의 모습은 베토벤이 평생 이상으로 삼았던 전형적인 여성상이었다.

오페라 대본은 케루비니의 오페라 대본을 맡았던 장 니콜라스 보울리의 연극 〈레오노레 혹은 결혼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이 연극은 1789년부터 빈에서 공연 중이었다. 비엔나 극장 감독인 페터 폰 브라운에게 작품 청탁을 받은 베토벤은 이 연극을 오페라로 만들기로 하고 죠셉 폰 존 라이트너에게 대본을 부탁하여 1804년 3막으로 완성했다. 그 결과 〈피델리오〉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충실한 내용으로 '인간 승리'라는 이상을 구현하여 베토벤 이상주의에 한 획을 긋게 된다.

서곡. 느린 서주가 붙은 소나타 형식으로 주제 선율은 플로레스탄이 부르는 아리아의 선율이다.

제1막 18세기 중엽 스페인 세비야부근 감옥. 자키노가 마르첼리네에게 결혼하자고 하지만 마르첼리네가 무시하자 실망하고 나간다. 그녀는 피델리오(플로레스탄의 아내로서 남장을 한 레오노레)를 짝사랑한다. 로코가 피델리오와 자키노를 데리고 등장한다. 로코는 피델리오가 그녀와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피델리오는 무반응이다. 이어 로코는 은연중 플로레스탄이라는 죄인이 지하 감옥의 독방에 있다고 하자 피델리오는 뜨끔하지만 태연한 척 한다. 4명이 저마다 심경을 고백하는 사중창이 끝나자 교도소장 돈 피차로가 등장한다. 그는 로코에게 국왕의 특사가 며칠 후 도착한다면서 플로레스탄이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며 '복수의 아리아'를 부르고 간수들은 두려워한다. 피차로는 로코에게 특사가 오기 전에 플로레스탄을 죽이라고 설득하지만, 그가 차마 못하겠다고 하자 피차로는 그에게 지하 감옥에 구덩이 하나는 파놓으라고 지시하고 로코와 함께 퇴장한다. 이 대화를 엿듣던 피델리오는 '비열한 자여! 어디로 서둘러 가는가?' 장엄한 아리아를 부른다. 로코가 마르첼리네와 함께 다시 들어오자, 피델리오는 죄수들이 너무 어두운 방에서만 지냈으니 하루 정도는 감옥 마당에서 햇볕을 쬘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한다. 로코는 이를 승낙하고, 죄수들을 마당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한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죄수들은 햇빛을 받으며 자유를 만끽하지만, 피차로가 당장 감방으로 수감하고 플로레스탄의 무덤을 파라고 명령한다. 로코는 피델리오와 함께 죄수들을 다시 감방으로 보낸다.

제2막 매우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 굶주리고 상처투성이인 플로레스탄이 쓰러져 있다가 힘들게 몸을 일으켜 리즈시절을 회상하며 환상속에서 레오노레가 언젠가 자신을 구출할 것이라고 아리아 '인생의 봄날에'를 부르고 다시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 그때 로코가 피델리오를 데리고 피차로의 지시대로 구덩이를 파러 내려온다. 로코와 피델리오가 한창 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 플로레스탄이 다시 깨어나 자신이 묻힐 무덤인 것을 안다. 로코는 플로레스탄이 아내에게 유언을 전하고 싶다는 요청을 거절하자 피델리오가 죄수에게 죽기 전 마지막으로 포도주와 빵을 조금 주자는 청은 받아들인다. 아직 남장한 아내 레오노레를 못 알아본 그는 감사를 표한다. 이어 호출 신호가 들리면서 피차로가 지하 감옥으로 내려온다. 그는 이제 플로레스탄을 죽일 때라고 하면서 칼을 빼들고 처형하려고 하지만, 피델리오가 모자를 벗고 머리를 풀면서 자신은 피델리오가 아니라 그의 아내 레오노레라고 소리친다. 피차로는 둘 다 죽일 수 있겠다며 칼을 휘두르자 레오노레는 숨겨놓았던 권총을 뽑아 겨누자 피차로는 칼을 떨어뜨린다. 동시에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키노가 국왕의 특사가 왔다고 황급히 전하자 그는 특사를 마중 나가기위해 로코와 퇴장하고, 둘만 남은 레오노레와 플로레스탄은 재회 기쁨의 2중창을 부른다.

피날레. 특사인 돈 페르난도가 억울하게 투옥되어 있던 정치범들을 석방한다는 국왕의 칙령을 낭독한다. 이어 플로레스탄이 레오노레와 함께 등장하고, 로코는 레오노레가 남다른 용기와 부부애로 남편을 구해냈다고 그에게 보고한다. 페르난도는 두 사람의 용기와 신의를 찬양하면서 레오노레에게 플로레스탄의 쇠사슬을 풀도록 하고, 피차로에게는 죄수들에게 가한 가혹행위의 책임을 물어 투옥시킨다. 군중들도 레오노레와 플로레스탄를 찬양하면서 막이 내린다.

들을 만한 Album



크리스타 루드비히(레오노레), 존 빅커스(플로레스탄), 발터 베리(돈 피자로), 로코(코트로브 프리크), 오토 클렘페러(지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EMI, 1962)



군돌라 야노비츠(레오노레), 르네 콜로(플로레스탄), 한스 소틴(돈 피자로), 돈 페르난도(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 레너드 번스타인(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DG, 1978)



브리기트 닐슨(레오노레), 제임스 맥크라켄(플로레스탄), 톰 크라우제(돈 피자로), 쿠르트 뵈엠(로코), 로린 마젤(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DG, 1964)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 클래식 501〉이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DOCTOR MOVIE

닥터 무비



내 인생의 영화 5

판옵티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2008년 8월의 어느 날. 급하게 다른 병원에 1주일 간 입원하기 전까지는 환자복이 돈 주고 구입한 죄수복이라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했다. 뜻하지 않게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버린 채 접하게 된 창문에 부딪히는 낭창한 비 소리와 우거진 녹음 사이로 보이는 흐드러진 바람 소리(느낌이 딱 그랬다)에 비해 조용한 병실 안쪽은 역설적으로 슬펐다. 내 몸 하나 마음대로 건사하는 사소한 일상이 그토록 고마울 수가 없었다. 지금은 그 때와 차원이 다른 범지구적, 범국가적 빅브라더의 시대가 되어 버렸다. 현재는 개인별로 마스크, 손세정제, 자가격리를 하는 개인의 자기지배체제인 솔로크라시(Solocracy)와 도처에서 동선을 추적하는 CCTV처럼 보이지 않는 감시체계인 판옵티콘(Panopticon)이 묘한 동거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자연을 언급할 때, 우리는 보통 둘 중에 하나의 의미에서 경외롭다고 한다. 먼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연재해인 쓰나미나 폭풍, 지진, 해일 등을 떠올릴 수 있고, 다음은 세포 내지 미생물 수준의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이다.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바이러스에 지고 말았다. 인간은 결코 이들의 반복된 진화에 맞설 수 없다.

사회적 격리로 말미암아 영화관은 꿈도 꾸지 못하고 집과 병원만을 오가는 옛날 고3 수험생 시절 동선이 되고 말았다. 일상을 사막처럼 변신시킨 범지구적 재앙은 영화계에도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여 개봉 영화, 신작 영화는 모조리 취소되는 비운을 맞게 되었고 OTT 플랫폼이나 IPTV같은 주문형 관람 행태가 대세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런 시기에는 과거에 개봉한 영화를 보는 수 밖에 없다. 나의 안일함에 기인한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아닌 변명을 하려는 참이다.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사망자가 나오면서 TV에서는 〈컨테이젼, 2011〉이 방송되기 시작했다. 너무도 유사한 발병 원인, 상황전개와 국면 전환, 음모론, 가짜뉴스, 통제불능 상태의 국가 등의 장면은 시나리오에 엄청난 노력을 들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감염자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누비고 공공장소의 문 손잡이를 만지는 장면, 일반 감기로 오인하면서 마스크를 끼지 않아 순식간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모습, "사람은 하루 최대 3,000번 얼굴을 만져요, 매분 3~5회"라고 말하며 방역 일선에서 일하다 결국 삶을 마치는 감염 전문가의 이야기부터 강한 전파력으로 병상이 부족해지는 사태, 국가(CDC)를 믿지 말라고 주장하며 개나리약으로 사기를 치는 유튜버(불량 마스크를 파는 일부 업자들과 유사함), CDC 파견의사를 볼모로 삼아 가족이 맞을 백신을 요구하는 지역 CDC 직원들의 모습까지. 영화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밑바닥 인간 군상의 모습까지 담아내고 있다. 현실에서는 다행히도 이런 경우는 아직 목도하지 못했다.

집권여당 대변인의 말실수로 회자된 대구 봉쇄 파문은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우한 봉쇄를 떠올리게 하며 〈감기, 2013〉에서 시체들을 성남 실내운동장에 포크레인으로 단체로 매립하는 영화 속 장면과 함께, 급기야 바리케이드로 도시를 폐쇄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폭탄으로 날려 버리자는 미국 측 대응에 각을 세우는 대통령의 모습을 강하게 떠올린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과 마트에서 긴 줄을 서다가 제품이 떨어져 서로 말다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연가시, 2013〉에서도 변종 미생물에 의해 뇌를 잠식당해 익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구충제를 사기 위해 병원과 약국에 간 사람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왜란이 발발하고 온 나라가 궁핍해진 시점에 왕이 죽었다. 영의정인 외척 조 대감은 방계 세자인 이창이 아닌 자기 딸 계비 조씨가 아들을 낳아 조씨 핏줄로 왕을 만들고 싶다. 자기 딸이 출산할 때까지는 왕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 대감은 명의 이승희를 불러 금단의 약초로 왕을 좀비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이후 이승희의 조수가 왕에 물려 죽은 후 의원의 환자들은 기아에 허덕이다가 그녀의 시체를 먹고 좀비로 변한다. 조선은 이제 죽어도 죽지 않는 망령들인 좀비로 가득 찬 저주받은 왕국이 되어 버린다. 〈킹덤 1〉의 짤막한 줄거리다. 〈킹덤 2〉는 왕국을 재건하려는 세자와 그를 막으려는 조 대감의 추종자들이 벌이는 후속기이며,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과 안타까운 죽음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의 반전이 뒤따른다. 시국과 절묘하게 일치하는 상황(감염병으로서의 좀비 문화, 영화관을 가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 총선을 앞둔 지도층의 민심 이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어 좀비 자체가 의미하는 공포와 억압에 대한 새로운 탈출구로서의 기능을 해 나가고 있다.

〈눈먼 자들의 도시, 2008〉에서 원인 모를 백색실명으로 격리수용된 보이지 않는 자들 틈바구니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척하는 안과 의사의 부인은 말한다. "모두가 눈이 멀게 된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끔찍한 재앙과 위기 상황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사라진 사람들의 본성을 혼자만이 직시하게 된 당혹감과 개탄스러움의 절망적 표현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타인에 대한 배려, 이타심,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거기에 아울러 자아도취에 빠진 '호모 나르키소스'에 의해 손써볼 도리가 없는 말기 암환자처럼 변해 버린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존재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중히 경고하는 듯하다.

볼 만한 MOVIE



컨테이전(2011)
스티븐 소더버그(감독)
마리옹 꼬띠아르(리어노러 오랑테스),
맷 데이먼(토마스 엠호프),
주드 로(앨런 크럼위드),
기네스 팰트로(베쓰 엠호프),
케이트 윈슬렛(에린 미어스)



감기(2013)
김성수(감독)
장혁(지구),
수애(인해),
박민하(미르),
유해진(경업),
이희준(병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인간을 정면으로 응시한 러시아의 대문호 그를 공포감으로 몰아넣은 병은?

도스토예프스키와 측두엽 뇌전증



글. **박진석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영혼의 심연을 파헤친 잔인한 천재'라는 평가를 받는 도스토예프스키는 낭만주의 시대를 지나 제정러시아의 막판,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에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며 〈지하 생활자의 수기〉, 〈악령〉, 〈죄와 벌〉, 〈백치〉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 인류의 걸작을 남겼다. 암울한 현실의 인간을 기록하며 평생을 보낸 그는 뇌전증, 폐 질환으로 투병하다 생을 마감하게 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일생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집필한 도스토예프스키는 매우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19세기 낭만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외로움과 고독이었다. 당시의 다른 작가들이 낭만과 러시아의 풍경, 자연 그리고 서사를 이야기 할 때, 그는 일반적인 삶에서 동떨어진 삶을 이야기 했다. 그는 젊은 시절 반정부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고, 처형 직전 극적으로 황제의 사면을 받고 얼어붙은 동토 시베리아에서 수년 동안 유형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이후 가족사의 비극,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절망의 나날을 보냈다. 이런 도스토예프스키의 생애는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병인 폐 질환과 뇌전증으로 어두운 날이 많았다. 그는 뇌전증 발작의 경험을 '이승과의 단절', '저승의 시작'이라 표현하였고, 작품 집필 도중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공포감에 휩싸일 때가 많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공포와 같은 위기의식이 그로 하여금 더욱 작품 활동에 매달리게 한 것이 아닌가 짐작게 한다.

뇌전증의 증상 중 가장 흔한 주관적 증상은 조짐으로 뱃속에서 치밀어오는 느낌, 공포감이 엄습하는 느낌 등이 있다.

뇌전증의 역사와 치료

뇌전증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오래된 질병이다. 당시에는 신성, 혹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고 여겼으며 이후 중세 시대에는 뇌의 체액이 빠져가나 발생한다고 여겼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뇌전증은 뇌에서 발병하는 질환이라는 이론이 자리를 잡았으며 전기 이상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20세기에 와서야 약물적, 수술적 치료가 본격화되었다.

측두엽 뇌전증(Temporal Lobe Epilepsy)은 측두엽에서 기원하는 발작과 관련한 여러가지 상황을 일컫는다. 측두엽 뇌전증은 뇌전증의 일부로 약물난치성 뇌전증 중 흔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주로 해마(Hippocampus)에서 기원하여 해마경화증(Hippocampal Sclerosis)을 동반하게 되고, 특징적인 증상으로 조짐, 자동증, 정신이상 등의 증상을 보인다. 뇌전증의 증상 중 가장 흔한 주관적 증상은 조짐으로 뱃속에서 치밀어오는 느낌, 공포감이 엄습하는 느낌 등이 있다. 그 외에 기시감(Deja vu), 이인증(Depersonalization) 등의 증상이 있다. 객관적 증상으로는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멍하게 응시하는 동작(Motionless Staring), 자동증이 나타난다. 자동증은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입맛을 다시거나, 침을 꿀꺽꿀꺽 삼키거나, 혹은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하며 행동을 멈추거나 동공이 확대되는 증상도 있을 수 있다.

진단은 뇌파, 뇌자기공명영상(Brain MRI) 그리고 양전자방출촬영(PET) 등이 사용되며 주로 항뇌전증약제로 치료하게 된다. 약제에 대한 반응성은 초기 수 년 동안은 약에 반응하다가 이후 점차 약물에 저항하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약물에 대한 반응성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좋은 반응을 보이다가 나쁜 경과를 보이는 등 다양하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관해(Remission)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약물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약제를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경우 해마, 편도, 해마곁이랑 등을 절제하는 수술적 방법으로 60~80%의 환자에게서 질병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브레인 MRI가 정상인 경우에도 환자의 병변이 측두엽기원임이 확인되었을 때 수술적 치료로 관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살던 19세기까지는 뇌전증의 치료가 정립되기 전이었다. 양차대전과 이념의 대립으로 폭풍과 같았던 19~20세기를 지나 인간의 이성과 인공지능을 통한 치료가 가능한 현재, 뇌전증은 더이상 신령이나 악마에 의한 질병이 아니다. 이제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고 치료와 조절이 가능한 질병임을 인지해 뇌전증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할 때이다.

참조
임상뇌전증학, 대한뇌전증학회
도스토예프스키, 책세상



고마운 당신에게

이것이 의사의 다정입니다

이비인후과 정진혁 교수와 환자 안승준 군의 편지

한 사람의 다정함은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한다. 의사의 다정함은 자신을 찾는 환자들에게 향하기 마련이다. 매일 두 번 환자와 눈을 맞추며 살뜰히 살피는 의사의 다정함이 13세 환자 안승준 군에게 향하자, 소년의 삶이 더 건강하고 따뜻해졌다.

글. **편집실** 사진. **선규민**

매일 두 번씩 제 병실을 찾아와 삼촌처럼 아빠처럼
친근하고 다정하게 봐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다정한 정진혁 교수님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항상 저에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병원이자 주기적으로 방문하던 병원이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눈과 코 부위에 생긴 발진으로 답답해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선 진료에서 생각보다 받아야 할 검사가 많았어요. 이전처럼 단순하게 약만 처방받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병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심각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피시며 입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던 정진혁 교수님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놀라시던 아버지와 저를 다독이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걱정없이 입원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가볍게 방문했던 진료에서 갑작스러운 입원을 하게 되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매일 두 번씩 제 병실을 찾아와 삼촌처럼 아빠처럼 친근하고 다정하게 눈맞춰 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의 빠른 조치 덕분에 제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의 상태를 잘 알고, 필요한 치료를 통해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은 붉은 발진도 답답함도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병원과 건강한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안승준 드림

환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안부 한 번 묻는 것까지
총체적 경험으로 치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안승준 군에게



아빠 손을 잡고 내원했던 안승준 환자는 겉보기에 단순한 피부 발진처럼 보였지만, 심각한 질병적 기로에 놓여있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눈 주위 피부에 감염을 일으켜 자칫 코나 눈으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 실명이나 생명의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협진을 통한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 파악이 필요해 입원을 권유했었죠. 각종 검사에 악화 시 수술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약물적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입원에 불안해하는 승준 군을 보니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승준 군이 안과로 전원한 후에도 퇴원할 때까지 내 환자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승준 군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의술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 마디, 안부 한 번 묻는 것까지의 총체적 경험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안과 질환에 대한 치료나 진단을 하진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얼굴을 비춰 승준 군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병원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는 약물치료만으로 회복해 건강하게 퇴원한 승준 군의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평소 손을 잘 씻고 눈을 만지지 않는 습관을 들여서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진혁 드림

주목할 만한 연구

아침 혈압 상승과 망막정맥폐쇄



연구자. 신용운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망막정맥폐쇄 환자에서 과도한 아침 혈압 상승은 황반부종 합병증 발생과 연관있다"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 3월호에 게재된 논문
'Increasing incidence of macular edema in excessive morning blood pressure surge in patients with retinal vein occlusion' 중에서

망막정맥폐쇄란?

망막정맥폐쇄는 당뇨망막병증 다음으로 흔한 망막혈관 질환이다. 망막의 정맥 순환 장애가 발생하면서 망막출혈, 부종을 일으켜 시력 및 시야 장애가 나타나며 주로 한쪽 눈에 발생하나 양쪽에 생길 수도 있다. 국내 국민건강영양조사 역학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상에서 약 1%의 유병률을 보이며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은 더 증가 한다. 망막혈관이 막히는 위치, 정도, 동반된 안과 질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무증상인 경우부터 실명에 이르는 경우까지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주로 망막 중심부인 황반부에 부종이 발생하고, 후기에는 유리체 출혈, 녹내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시력 저하를 일으킨다. 황반부종이 발생할 경우 눈 속 약물 주사가 주된 치료이며, 약물 주입 후 황반부종이 완화되면서 시력이 호전될 수 있으나, 완벽한 시력 회복은 어려우며, 약물의 작용 시간이 떨어지면 황반부종이 재발하여 자주 주사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후기 합병증으로 유리체 출혈, 녹내장 등이 발생할 경우 망막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질병의 발생을 낮추려면 위험인자 관리가 필요하다. 망막정맥폐쇄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으며 그 중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망막정맥폐쇄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이환율, 사망률 등이 높다. 따라서 망막정맥폐쇄 자체는 안과 질환이지만 전신적인 문제에 의해 유발되는 특성 때문에 질병 관리에 있어 안과 진료뿐 아니라 내과적 협진이 필수적이다.

망막정맥폐쇄에 의한 황반부종과 혈압 변동성

망막정맥폐쇄에서 황반부종은 시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이자 치료 타겟이다. 황반부종은 정맥폐쇄에 의한 이차적인 허혈성 변화로 혈액-망막 장벽이 깨지고 이로 인해 망막 조직 내에 수분이 축적되며 발생한다. 황반부종은 망막정맥폐쇄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이지만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막힌 혈관의 위치나 막힘 정도가 황반부종 발생에 기여하긴 하나 이와 관련된 전신적인 인자는 연구된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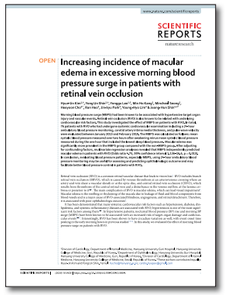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에서는 망막혈관폐쇄로 진단된 환자들의 심혈관 위험인자 관리를 위해 심장내과 협진을 진행해오고 있다. 안과, 심장내과 공동 연구팀은 그동안 시행한 환자들의 안과 및 심혈관 검사 자료들을 정리하여 망막정맥폐쇄 환자들을 대상으로 황반부종과 관련 있는 심혈관 인자들을 조사하였다. 총 76명의 망막 폐쇄 환자들을 분석하였고 이중 49명이 황반부종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심혈관 인자 중 혈압 변동성, 특히 과도한 아침 혈압 상승이 있을 경우 황반부종 발생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 과도한 아침 혈압 상승이란 기상 후 2시간 뒤 측정한 수축기 혈압과 수면 시 가장 낮은 혈압의 차이가 29.3mmHg 이상이거나 기상 후 2시간 뒤 측정한 수축기 혈압과 각성 전 2시간에 측정한 혈압 차이가 14.4mmHg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망막정맥폐쇄의 중요 위험인자인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측정하여 그 결과로 혈압 정도를 평가하지만 실제로 혈압은 일중 변동이 있다. 생리적으로 수면 중에는 혈압이 떨어지지만, 잠에서 깼을 때는 혈압이 상승한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변동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양한 심뇌혈관 질환 및 표적 기관 장기 손상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로 허혈성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이 하루 중 기상 후 아침부터 오전 수시간 내에 많이 발생하는 사실은 아침 혈압 상승 중요성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망막정맥폐쇄 환자의 고혈압 조절 중요성을 얘기해 왔다. 그러나 망막정맥폐쇄의 주된 합병증인 황반부종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가 최초로 연관 있는 전신 인자를 찾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망막정맥폐쇄에 의한 황반부종 환자들은 눈 속 약물주사 치료로 어느 정도 증상 완화가 가능하지만 재발이 많고, 재발할수록 추가 주사를 맞아야 하며, 재발이 반복되거나 치료를 중간에 포기할 경우 심각한 시력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고혈압 조절, 특히 혈압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의 고혈압 치료가 눈 속 약물 주사와 더불어 새로운 황반부종 치료가 되길 기대한다.



Remarkable research


SCIENTIFIC REPORTS
OPEN Increasing incidence of macular edema in excessive morning blood pressure surge in patients with retinal vein occlusion

Increasing incidence of macular edema in excessive morning blood pressure surge in patients with retinal vein occlusion

망막정맥폐쇄 환자에서 과도한 아침 혈압 상승은 황반부종 합병증 발생과 연관있다.

2020년 3월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 (인용지수: 4.122)에 개재된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조희윤, 신용운 교수와 심장내과 신정훈, 김현진 교수 공동연구팀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들을 함께 협진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같이 고민하여 얻은 성과물이다. 망막혈관폐쇄 환자에서 황반부종 합병증이 혈압 변동성, 특히 과도한 아침 혈압 상승과 연관 있다는 것을 밝혀 단순한 고혈압 치료가 아닌 혈압 변동성을 최소화 하는 세밀한 혈압 조절이 망막정맥폐쇄 환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이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人을 소개합니다.
2020년 2월 ~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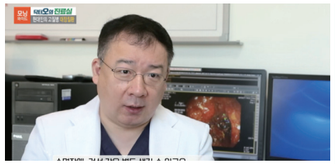
YTN사이언스 전형준 교수
노인성 척추질환의 대표…'척추관협착증'



KBS 2TV 생생정보 김봉영 교수
SOS 코로나19 정보통



TV조선 최규선 교수
막히고 터지면 죽는다!



SBS 모닝와이드 이항락 교수
현대인의 고질병 대장질환

On-Air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배상철 교수
피부가 보내는 구조신호 루푸스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지용 교수
코로나19 고위험군



YTN사이언스뉴스 신진호 교수
앉아 있다 머리가 핑하고 돈다면? 기립성 저혈압!



대구MBC 특집다큐 강형구 교수
코로나19 특집 "대구 봄"

한양대학교병원

전형준 신경외과 교수 YTN 사이언스 [내 몸 보고서] 2월 4일 / 노인성 척추질환의 대표…'척추관협착증'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2월 5일 / 현대인의 고질병 대장질환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2월 6일 / 코로나 바이러스, 2월 11일 / 당뇨병, 2월 25일 / 코로나19, KBS 2TV [생생정보] 3월 2일 / SOS 코로나19 정보통, [헬로TV 뉴스] 3월 23일 / 고사리손으로 쓴 편지… '코로나 극복' 지역사회 나눔 물결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KBS Radio [건강365] 2월 28일 / 대사증후군 김희진 신경과 교수 TV조선 [건강다큐] 2월 15일 / 막히고 터지면 죽는다! 최규선 신경외과 교수 TV조선 [건강다큐] 2월 15일 / 막히고 터지면 죽는다!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일요특선다큐] 2월 16일 / 게임it수다, MBC [뉴스투데이] 2월 21일 / 유아 · 어린이 스마트폰 과의존…뇌 발달 · 성장 위협, KBS Radio [건강365] 3월 12일 / 코로나로 인한 불안심리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 SBS [세상에 이런 일이] 2월 20일 / 10년간 혹이 계속 자란 혹 아저씨, 수술은 가능할까?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2월 26일 / 내 몸을 살리는 혈관 건강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 팟빵 Radio [나는 의사다] 2월 27일 / 남자들만 아는 그 고통…축구하다가 급소 맞았을 때!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EBS [명의] 3월 6일 / 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 YTN 사이언스 [내 몸 보고서] 3월 10일 / 앉아 있다 머리가 핑하고 돈다면? 기립성 저혈압! 김상헌 호흡알레르기내과 교수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월 6일 / 면역력 키우는 3대 식품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대구MBC [특집다큐] 3월 27일 / 코로나19 특집 "대구 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배상철 류마티스내과 교수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2월 12일 / 피부가 보내는 구조신호 루푸스 전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EBS [명의] 2월 28일 / 몸에 생긴 이상 신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보승 응급의학과 교수 KBS 1TV [뉴스] 2월 6일, 7일 / 지역사회 감염 차단 총력…'진단 확대' 오늘부터 적용, 팟빵 Radio [나는 의사다] 2월 17일 / 불면증에도 요요가 있나요? 문지용 호흡기내과 교수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월 10일 / 코로나19 고위험군 조희윤 안과 교수 채널A [뉴스] 3월 29일 / 백세시대, 눈 건강을 사수하라!

2020년 2월 10일(월)



2020년 3월 9일(월)



2020년 3월 18일(수)



2020년 2월 4일(화)



News Paper

한양대학교병원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조선일보 / 2월 4일 / 대변에서 신종 코로나 검출… 공중 화장실 피해야 하나요?, 서울신문 / 2월 12일 / 짧게 생존하는 코로나, 중국산 김치론 안 움아…, 중앙일보 / 3월 2일 / 강한 항생제 맞서 더 강해진 세균 악순환 끊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동아일보 / 3월 9일 / 코로나19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 조선일보 / 3월 23일 / 코로나 19 위험 큰 20대 흡연자… 사이토카인 폭풍 주의, 조선일보 / 3월 25일 / 혹시 나도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자'?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국민일보 / 2월 5일 / 속 답답 더부룩하다면… 손 딸까, 말까?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시아경제 / 2월 6일 / 되로 주고 말로 받자, 2월 20일 / 산책은 나의 힘, 서울신문 / 2월 26일 / '코로나 격리'에 지친 우리… '마음의 방역' 필요해, 아시아경제 / 3월 5일 / 우리 안의 작은 영웅, 서울신문 / 3월 17일 / 코로나 두달… 건강염려증 털고 숙면 · 노래 · 햇볕쬐기 '보약', 아시아경제 / 3월 19일 / 비움의 미학 김희진 신경과 교수 중앙일보 / 2월 10일 / 피곤하다고 누워서 쉴 때도 염증은 혈관 · 뇌 공격 이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 2월 11일 / 물 자주 마시면 신종 코로나 막을 수 있을까?, 3월 3일 / 비누 VS 손 소독제 VS 물티슈… 세균 제거 효과 가장 좋은 것은? 손장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국민일보 / 2월 19일 / 코로나19 감염, 산소포화도로 알 수 있다?, 3월 9일 / '10초 숨 참기로 코로나 자가진단'… 가짜뉴스 윤호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 3월 5일 / '지자체가 재개 결정' 규정 한줄에, 150만명의 거점병원을 12일째 폐쇄, 3월 20일 / '전화 처방' 가능하지만… 혈압 · 혈당 이상 땐 병원 꼭 가세요 김상헌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 3월 6일 / "항콜린약 오래 먹을수록 응급실 방문 위험 커" 이창화 신장내과 교수 중앙일보 / 3월 9일 / 진통제 먹었는데 옆구리에 통증? 콩팥 상태 살펴보라는 신호 조석현 이비인후과 교수 한국일보 / 3월 23일 / 코 세척, 알레르기 질환 예방에 도움 김정은 피부과 교수 경향신문 / 3월 27일 / 각양각색 단계별 건선치료… '생물학제제'는 또 어떤 치료일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존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일보 / 2월 1일 / "학령기 아동 5~10%가 틱 장애… 혼내거나 다그치면 더 악화", 헤럴드경제 / 3월 18일 / 코로나19 심리지원단에 '슬기로운 코로나기' 상담해보니…, 조선일보 / 3월 24일 /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이중성 정진혁 이비인후과 교수 조선일보 / 2월 3일 / 막힌 코 뚫어주는 '멘톨 스틱', 비염 되레 악화시켜 강보승 응급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 2월 10일 / 17번 확진자가 보여준 '마스크의 힘' 한승훈 재활의학과 교수 한국일보 / 2월 18일 / 하루 1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관절염 환자 일상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국민일보 / 2월 18일 / 하루 1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관절염 환자 일상 바꾼다, 조선일보 / 3월 9일 / 코로나 블루, 헤럴드경제 / 3월 13일 / 지나친 격리는 우울감 높여 조희윤 안과 교수 조선일보 / 3월 18일 / 못 씹으면, 주름 생기고 뇌 건강 악화까지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유대현 류마티스내과 교수 매일경제 / 3월 23일 / 제약, 임기만료 사외이사 80% 교체…회계 전문가 중용

HANYANG NEWS

2020년 3월 ~ 4월

한양대학교의료원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물품 전달식' 개최



본원은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와 함께 한양대학교로부터 KF80 덴탈마스크 3천 장과 손소독제 2백 개를 기부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최호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진이 많이 지쳐가고 있었는데, 한 가족인 한양대학교에서 이렇게 큰 도움을 주어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직 교학부총장 겸 사회봉사단 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릴레이 형태로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웅진식품으로부터 커피 1천 잔, 이온음료 2천 잔 기부받아



본원은 지난 4월 28일 웅진식품으로부터 커피 1천 잔과 이온음료 2천 잔을 기부받았다.

최호순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생하는 우리 교직원들을 위해 외부에서도 응원의 손길이 많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나가자"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코로나19 환자 치료 위해 의료진 파견



본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지난 3월 9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의료진을 급파한 이후 14일 김제시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 의료진 파견을 시작으로 4월 7일까지 병원의 사명인 '사랑의 실천'을 전파했다.

지난 3월 9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급파된 강형구 교수는 "지역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는 약 380여 명의 확진자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 입원환자들이 악화되어 중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4일부터는 생활치료센터인 김제시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는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와 김현진 간호사가 병상 부족으로 병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대구지역 환자들을 진료했다. 김봉영 교수는 "지난 17일 증상이 호전된 14명의 환자들이 첫 퇴소했으며, 입소 중인 150여 명의 환자들의 건강상태도 매우 양호하다"며 "환자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학과 박훈기 교수와 송호정 간호사가 파견되어 진료를 이어나갔고, 가정의학과 황환식 교수와 최진미 간호사가 4월 7일을 끝으로 삼성생명 전주연수소에서의 모든 진료를 마무리했다.

윤호주 병원장은 "3월부터 대구경북지역 중환자들이 본원으로 이송돼 안전한 음압병실에서 치료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들의 적극적 참여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본원에서는 감염병 유입 차단과 함께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세심한 진료환경 마련에 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헬스리아로부터 마스크 1만 장 기부받아



본원은 ㈜헬스리아 국대마스크로부터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 장을 기부 받아 지난 3월 20일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마스크 기증식'을 진행했다.

전헌효 운영지원국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해 줄 최소한의 보호구인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기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선별진료를 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인 본원 의료진들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일구 ㈜헬스리아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밤낮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에게 마스크 기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풍원그룹서 'G7 원컵 커피' 2천 잔 기부받아



본원은 지난 3월 27일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G7 원컵 커피 기증식'을 진행했다.

전헌효 운영지원국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를 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인 본원 의료진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풍원그룹 코퍼레이션 김승수 지사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응원한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들에게 한 잔의 커피로 피로회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설명회 개최



본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단(단장 윤호주)'은 지난 3월 9일 동관 5층 회의실에서 '2021년 혁신형 의사과학자 2단계 사업을 위한 연구자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연구사업'에 선정된 본원은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52.5억 원을 지원받아 의학과 공학의 융합 연구에 집중 투자해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한층 변모할 예정이다.

윤호주 단장은 "보다 많은 신진 의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며 "사업단은 앞으로도 훌륭한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해 연구환경 조성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 교수, '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 기부



본원 고용 신경외과 교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군분투하는 교직원과 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한양대학교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6일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발전기금을 쾌척한 고용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고용 교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환자치료를 위해 벌써 3개월째 교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애쓰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추운 날씨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병원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주 병원장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선뜻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신 고용 교수님의 깊은 뜻을 받들어 교직원과 병원의 발전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유튜브 건강강좌 개최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에서 개최됐던 루게릭병클리닉 건강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로 진행됐다.

3월 17일 진행된 건강강좌는 신경과 박진석 교수가 '루게릭병의 증상 조절'을 주제로 강의했다.

루게릭병의 여러 가지 증상에 맞는 조절방법을 소개한 박진석 교수는 "루게릭병은 증상 조절을 잘 하면 생존기간과 진행속도를 늦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루게릭병클리닉 환우를 위한 온라인 강의는 유튜브 한양대학교병원루게릭병클리닉'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선 2월 22일 진행된 건강강좌는 사회복지사 성명순 과장이 '루게릭병 환자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 국내 사회복지제도와 민간기관에서 후원하는 사업, 진료비 지원 체계 등을 소개한 성명순 과장은 "의료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코로나19 예방 '모바일 사전 문진' 도입



본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전파와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 출입문에서 감염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출입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했다.

방문객은 예약문자를 통해 방문하기 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확진자 접촉 여부,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 방문력 등을 답변하고, 전용 출입구를 통해 체온측정 후 대기 없이 신속하게 병원을 출입할 수 있다.

한동수 병원장은 "모바일 사전 문진을 통해 환자-환자, 환자-직원 간의 감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물동정



유대현 교수, 최상위 논문연구자 선정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유대현 교수가 지난 2월 26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최근 5년간(2014~18년)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의 논문(HIghly cited papers) 연구자에 뽑혀 '2020년 최상위논문연구자'로 선정됐다.



신현구 교수팀, 국제학술지 『Resuscitation』 연구 논문 게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신현구 교수팀(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태호 교수, 한림의대 응급의학과 김재국 교수, 김원희 교수 등)이 응급의학 영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중 하나인 『Resuscitation』(IF: 4.572) 3월호에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고성호 교수,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중개연구 신규지원 과제 선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고성호 교수가 총괄책임을 맡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장미숙교수 및 ㈜엘피스셀테라퓨틱스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지난 4월 2일 2020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 성과창출형 중개연구 신규지원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Hihy 건강저장소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2020년 3월 ~ 2020년 4월

YouTube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TV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병원'
https://pf.kakao.com/_WxgaRu

YouTube
'한양대학교의료원(HYUMC)'
https://www.youtube.com/user/HYUnivMedical

네이버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https://post.naver.com/hyumc-pr

NAVER 포스트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포스트



NAVER 포스트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건강카드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20년 2월 ~ 2020년 3월 기부자 명단

발전기금은 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기부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나눔이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질병 극복의 꿈을 안고 새로운 연구로
끊임없이 희망을 찾는 한양대학교
의료원과 동행해주십시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로 바로 이동합니다.

1억원 이상

고용

우림해운㈜

공동의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곽인영
구선완
국은영
㈜)케미원
차상석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김금옥
김대호
민병원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김형수
박재일
오상우
유준호
윤여욱
이동규
이하은

1백만원 미만 ~5십만원 이상

김영애
김호중
고영선

5십만원 미만 ~1십만원 이상

강일규
강창남
강형구
강홍구
고병우
고성호
고승현

김한준
김현욱
김희숙
김희수
남승혁
남정현
노선균
노정환
노준모

김도윤
김문성
김성재
김승현
김승현
김영보
김영수
김영호
김예슬
김옥임
김용수
김용호
김윤영
김이석
김재민
김정수
김지영
김창렬
김창선
김철웅
김충현
김태완
김태형

류기영
류제일
문지용
문진화
문홍상
박기철
박동우
박예수
박용천
박원희
박일규
박찬혁
박태선
박혜경
박환철
박희겸
박희철
방소영
백광흠
서승표
서우영
서정심
성명순

성민철
손주현
송창면
신대현
신용운
신우종
신정철
신정훈
신태양

심경아
심재항
심지훈
염상철
염종훈
오영하
오재원
유미경
유정아
윤원구
은창수
이경섭
이광현
이규용
이두연
이봉근
이상훈
이성필
이승욱
이승환
이양섭
이영석
이유경

이장현
이종
이주학
이진규
이창범
이창훈
이형중
이혜순
이화준

임성민
임종선
장성호
장재선
장지연
장태원
전용철
전우재
전재범
전형준
정규성
정우성
정재홍
정진혁
정진환
조기섭
조상윤
조영훈
조주열
조희윤
주신환
지용배
채영림

최경진
최규선
최성환
최성훈
최완식
최정혜
최준석
최준호
최충혁

최혁중
최홍용
하루미
한동수
한명훈
한상웅
한승훈
한주희
홍신혜
황규태

1십만원 미만

강문주
강민아
강석범
강성훈
강신창
강윤성
강지원
고란주
공경숙
공지현
곽동원
권난희

권미화
권연희
권오균
권유진
권혁천
권현숙
김경수
김경숙
김경실
김경우
김광영
김기라
김나영
김남기
김대건
김도와
김동관
김란
김명환
김미라
김미라
김미라
김미성
김미화
김미희
김민정
김민정
김병숙
김보미
김상미
김상훈
김상희

김석현
김선영
김성철
김성훈
김영신
김영실
김영애
김영욱
김영주
김영선
김영신
김영연
김영일
김영자
김영훈
김옥중
김윤용
김육원
김은미
김은실
김은희
김인호
김자윤
김재희
김정달
김정숙
김주희
김준식
김중식

김창금
김창복
김철한
김초롬
김춘애
김태근
김태호
김하연
김현주
김현진
김현창
김형근
김형석
김형주
김혜림
김황룡
김효준
김휘원
김희나
나소정
나인철
남순영
노광규
노옥석
노창완
류중백
명영숙
문상희
문영민
문재봉
문정희
문희애

박경림
박경미
박경숙
박경희
박근배
박미숙
박미순
박미옥
박상혁
박선아
박선영
박선영
박선희
박성욱
박성찬
박소은
박수미
박수정
박순구
박연희
박용범
박유정
박은수
박은영
박은영
박은형
박응범
박주은
박지경
박지애
박진옥
박진희

박진희
박창구
박춘아
박현화
박혜정
박희정
반은주
방성주
배순석
배은희
백운철
백형정
변순현
서명진
서병갑
서승희
서승희
서영남
서정원
서현주
설명길
성경희
성혜윤
손영성
손진석
손한숙
송은경
송주영
송현수
신동한
신명희
신미숙

신수지
신순교
신정미
신철우
심요라
안명현
안미경
안석태
안선미
안유정
안은종
안은진
안정미
안치원
양길녀
양미영
양수용
양은주
양정자
양효선
엄혜정
여광호
오금복
오기향
오미경
오미혜
오영숙
오유선
오정님
오홍석
오화경
오희순

옥상열
우순희
우정미
원혜정
원홍석
유고은
유미화
유병호
유선길
유숙
유영미
유은희
유정안
유주량
유지학
유창성
유헌영
육수영
윤명희
윤선미
윤선애
윤아름
윤여필
윤인숙
윤정희
윤지선
윤향순
윤현순
윤희정
음희재
이강연
이경식

이경은
이경철
이경희
이관석
이규택
이나영
이두종
이명숙
이명주
이미경
이미란
이미정
이민진
이상미
이상현
이새롬
이서윤
이선화
이성모
이성미
이수연
이숙
이숙희
이순자
이승호
이연주
이예린
이윤미
이은경
이은명
이은애
이은주

이은희
이정식
이정애
이정은
이정인
이정화
이정화
이정희
이종열
이주영
이주한
이주현
이주현
이진주
이창우
이현주
이현중
이혜정
이호문
이호용
임경순
임연희
임완예
임은실
임인자
임정연
임주아
임지영
임화영
장경희
장선정

장윤주
전경신
전석분
정경은
정기영
정대천
정미선
정선주
정은영
정일웅
정임증
정재호
정정미
정현정
정혜영
정훈
조구성
조규선
조아라
조은영
조인옥
조현교
조현일
조환영
지미경
지은아
지혜정
진춘희
천경희
천영복
천은미

천은선
최문정
최미옥
최선희
최성은
최세연
최소담
최신자
최영선
최윤희
최재범
최종석
최종은
최현구
최현주
최혜용
최호진
표은주
하경애
하은영
한상운
한승희
한아영
한정연
한현남
한현정
함명자
허동렬
허정헌
허태영
홍대영
홍민영

홍성숙
홍숙의
홍은미
홍의호
황성희
황영순
황의순
황정선
황준호
황희수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designed by









코로나19 출입구 문진

최근 14일 이내 접촉력	예	아니오
해외여행	□	□
확진자 접촉 또는 문자	□	□
확진자 발생 병원 또는 기관	□	□
증 상	**예**	**아니오**
발열(37.5℃이상)	□	□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등)	□	□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금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3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2주)	수	간질환
	이항락	금, 토(4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해 외 연 수		
	윤재훈	월, 화, 토(2주)	목	담낭, 담도, 췌장
	최성지	목	화,금	담낭, 담도, 췌장
	서원우	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여지현	목	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박수현	수, 토(4,5주)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유찬규		월,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관홍	월, 금, 토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허윤성		목,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신진호	월, 수, 금, 토(3주)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술시술
	임영효	수, 금, 토(5주)	월,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대동맥 및 말초동맥질환,심혈관중재술,성인선천성심질환
	박진규	월, 목, 토(1주)	화, 목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허 란	화, 토(3주)	월, 목, 금	심장질환
	차승주	화, 목, 토(2,4주)	화, 금	심장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2주)	월, 목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박준성	월, 목, 토(3,5주)	화, 수,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홍수진			일반 신장내과질환
	김태훈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대사내과 2290-8300	안유헌	월~목, 토(1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김동선	월 수 목 토(4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수, 금, 토(3주)	수, 목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손영석	토(1,5주)	월, 화, 목, 금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손장원	목, 토(2주)	월	호흡기중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헌	화, 금, 토(1주)	월, 화	기침,천식, 알레르기비염,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약물 부작용,면역치료
	박동원	해 외 연 수		
	이 현	목, 금, 토(4주)	수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정승준	월 수, 토(3,5주)	화, 금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김준경	화	목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수	목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종,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월, 화, 목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뇨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김봉영	화, 금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중환자실 내과계	손장원	월~수, 금	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중환자실 외과계	김지윤	월~금	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화, 목	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뇌전증
	이영호	월(구리), 화(세포치료),토(1주)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월, 화(내시경), 목,금(내시경)	월, 수,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이현주	수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김진섭	수, 금, 토(3,5주)	화, 목	소아내분비
	안지혜		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육아지도실
	김종덕	월, 화, 토(4주)	수, 금	호흡기알레르기
	나재윤	월, 수, 토(1주)	화	소아심장 및 혈관질환, 부정맥, 성인선천성심장병, 가아사끼병, 소아 중환자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생아 중환자실	박현경	수~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현주	월, 화, 목, 금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안자혜	월~금	화, 목, 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안자혜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경과 2290-8367~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승현	월금(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토(4주)	화, 수▲,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토(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불면증
	김영서	해 외 연 수		
	오기욱	월·금▲, 토(1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월, 화	월, 금	뇌전증, 실신, 수면장애,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치매, 하지불안증후군
	이상곤	수, 토(1,5주)	월▲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어지럼증, 일반 신경과질환
	류창환	금	화	일반 신경과질환
	성원재	화, 목		일반 신경과질환
	곽현승	월	목	일반 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김석현	월 목, 토(2,4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노성원	화, 금, 토(1,3주)	월, 목	중독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인지장애, 조현병
	김인향	월, 수, 토(4주)	수~금	소아정신의학,소아/성인 ADHD,발달지연
	이건석	화, 목, 금	화, 수	양극성 장애, 조현병, 불안장애, 우울증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월, 목, 토(2주)	월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화, 목(1,3주), 금, 토(3,5주)	목, 금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 질환, 피부암, 건선
	김정은	월, 수, 금(2,3주), 토(1,4주)	화, 수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고원선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위, 십이지장질환, 외과종양학
	권오정	월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월,목(맘모톰 시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수술
	하태경	화	월(비만),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월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이주희	월	목	위암, 위장관질환, 탈장복강경, 로봇수술
	최지윤	화	금	혈관외과, 신장이식
	차치환	금	화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소아외과	손준혁	금, 토(4주)	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화, 금	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수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장효준	월, 수	수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자발성 기흉, 다한증,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이준호	금	월, 금	대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에크모, 심장이식, 흉부외상
정형외과 2290-8473	이광현	월, 수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화, 목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금	월, 금	고관절 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목	골절, 외상, 골반교정, 다발성 손상, 골다공증성 골절, 골수염, 불유합, 고관절 골절
	이진규	목	화,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창훈	금	수, 금	수부외과 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성훈	토	월, 수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전화예약 : 1644 - 9118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31-560-2082 http://guri.hyumc.com * 2020년 5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종양질환,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척추질환
	김영수	화	목	뇌종양,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 질환, 방사선수술(노발리스TX)
	백광흠	월, 수, 토(2주)	금	요통,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수종양
	이형중	목, 토(3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금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최규선	금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방지훈	목		일반 신경외과질환
	나민균	목	월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수두증
	백주열		화	일반 신경외과질환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연환	화, 목	화	미용성형, 외상, 하지재건, 액취증, 안면부외상, 욕창
	박성오	월, 토(2,4주)	수, 금	안면외상(골절 및 신경재건), 수부외상, 선천기형, 미용성형, 미세재건, 두경부재건
	장란숙	월, 수, 토(1,3,5주)	목	소아성형, 안면외상, 화상, 미세성형, 만성창상, 액취증, 지방흡입, 미용성형
	류재만		화, 목	일반 성형외과질환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수, 금	월, 목	폐경,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최중섭	월, 수, 토(5주)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1,3주)	화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해 외 연 수		
	엄정민	금, 토(2,4주)	월, 수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효진	월, 수, 토(5주)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금지현	목, 토(2,4주)	화, 목	일반 산부인과질환
안과 2290-8570	이병로	화, 목	목	망막, 유리체, 포도막, 백내장
	임한웅	금, 토(4주)	월, 수	소아안과, 사시, 신경안과, 안성형
	안성준	수, 금, 토(1,3주)	화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김유정	월, 토(2,5주)	화, 목	와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이원준	월, 수, 토(2주)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화, 금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갑상선암, 두경부암, 후두암, 구강암, 로봇수술, 음성질환
	조석현	월, 화, 금(수면클리닉), 토(1주)	월,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 무호흡
	송창면	목, 토(3주)	화, 목(음성클리닉)	후두음성질환, 성대질환, 편도질환, 구강질환, 갑상선암, 두경부암
	변하영	수, 토(4주)	월, 수(어지럼증 클리닉), 금	어지럼증, 난청, 소아이비인후과질환,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김민송	월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선욱	목	월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비뇨의학과 2290-8593	김용태	화, 목, 토(2주)	화, 수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 성기능장애, 불임
	박성열	월, 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소아비뇨기질환
	조정기	월, 금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윤영은	화, 수, 토(3주)	화, 금	결석, 혈뇨, 로봇수술, 신장암, 신장이식, 최소침습수술, 항암치료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3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 2020년 5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부인과종양, 유방암, 비뇨기종양
	박혜진	화, 금	월, 화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 림프종, 유방암, 방사선수술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치과 2290-8671	심광섭	화, 금	수	턱얼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황경균	월, 화, 수, 목, 토(2주)	월, 화, 수, 목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월, 화, 수, 목, 금, 토(3주)	화, 수, 목, 금	턱얼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한지영	월-금, 토(4주)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주형	월, 화, 목, 토(4주)	월, 화, 목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이은혜	월, 수, 금, 토(3주)	월, 수,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권구현	월, 수, 금, 토(1주)	월, 수, 금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박훈기	월	목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황환식	화	금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하태경		화	고도비만대사 수술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이수진	월, 수(1,3주), 목, 금(1주)	목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송재철	수(2,4주), 목(1주), 금	월, 화,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성인형스틸병,근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2주)	화(3미장),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경피증,통풍,레이노증후군
	김태환	화~목, 토(2,4주)	월, 화	강직성척추염,척추관절병증
	성윤경	월, 수, 금, 토(4주)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루푸스,골다공증,스그렌병,강직성척추염
	최찬범	화, 수, 금, 토(3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강직성척추염,혈관염,건선관절염,베체트병,통풍,루푸스
	조수경	월, 수, 목, 금, 토(3주)	금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루푸스,염증성근병,통풍
	신정민	수, 토(4주)	화	일반 류마티스질환
	이연경	월, 금, 토(1주)	목	일반 류마티스질환
	이태한	목, 토(2,5주)	월, 수	일반 류마티스질환
	박대진			일반 류마티스질환
	송여진	화, 토(3주)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임현영	화, 금	화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김초롱	월, 목	목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 슬관절염
	이봉근		화	전 주관절, 회전근개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견관절
	최성훈	월		퇴행성척추증, 류마티스성 척추질환, 추간판탈출증, 경추척수증 및 신경근증, 척추관 협착증, 노인성성후만증
류마티스안과	김유정	목	월	쇼그렌증후군, 건성안, 류마티스 관련 눈질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종합검진 2290-9550	이오영	목	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금, 토(2,4주)	목, 금	가정의학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간종 간질환(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경화증, 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위장관 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위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 질환
	은창수	수, 금, 토(2,4주)	월	위질환, 대장질환, 식도질환, 소장질환, 위암, 대장암, 대장용종
	이지영		금	소화기, 위장관질환
	안지현	수, 목, 토(1주)	화, 금	간종 간질환(지방간, 바이러스간염, 간경변증 (간경화증, 간암))
	이재곤	화, 금, 토(3,5주)	목	소화기, 위장관질환
심장내과	김순길	월, 화, 목, 금		임상심장학, 고혈압, 비혈관적 심기능 검사(심초음파)
	김현진	목, 금, 토(1주)	월, 화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병증, 심막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선천성심질환
	신정훈	월, 수, 토(2,4주)	화, 목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고혈압, 심부전
	이용구	화, 토(3,5주)	월, 수, 금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부전, 말초혈관 질환 및 중증하지허혈질환
신장내과	한상웅	월, 목(클리닉),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말기신부전클리닉
	이주학	화, 수(클리닉), 목, 토(2,4주)	월, 목	전해질이상질환,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고혈압, 부종, 부종클리닉
	유미연	월, 수, 토(1,3,5주)	화,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 통팥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이식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 수, 목, 금	월, 목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갑상선, 골다공증
	유성훈	월, 금, 토(2,4주)	월, 화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홍상모	월, 화, 토(1,3주)	수, 금	
류마티스내과 관절류마티스클리닉▲	이혜순	월, 수, 목	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경피증, 섬유근통, 피부근염
	방소영	화, 금, 토(2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경피증, 섬유근통, 레이노증후군
	민경민	월, 수, 목, 토(1,3주)	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만성통증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 수, 목, 토(2주)	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문지용	화, 금, 토(1주)	월, 목	만성기침, 호흡곤란, 천식, COPD, 결핵, 폐암
	박태선	토(4주)	수	중환자의학, 폐암, 호흡부전, 급성호흡곤란 중추군, 패혈증, 인공호흡기, 체외심폐보조요법(ECMO), 기관지내시경 중환자초음파
	여유미	수, 금, 토(2주)	월, 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조민주		금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중환자실 내과계	박태선	월~금	월, 화, 목, 금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외과계	김현일	월~금	화, 수, 금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금, 토(2,4주)	월	우방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소장암, 직장암, 기타 전이/재발암, 양성혈액질환 및 혈액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
	원영웅	월, 수, 금, 토(5주)	화, 목	두경부암, 폐암, 식도암, 위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기타 전이/재발암, 양성혈액질환 및 혈액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
	허준영	월, 화, 토(1,3주)	수, 목, 금	황경균치과-위암, 비뇨기암, 부인과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소장암, 대장(직장)암, 기타 암, 다발골수종(형질세포종양), 악성림프종, 양성혈액질환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김창렬	금	화	신생아, 미숙아, 영아신경발달
	오재원	수, 금, 토(4주)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화, 목	월, 목	소아신경질환(경련, 두통, 발달지연)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최영진	월, 목, 토(5주)	월, 수, 금	소아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
	양승	수,토(3주)	화, 수, 목, 금	소아내분비, 성장, 유전대사질환
	이경석	화, 토(2주)	목	소아응급, 소아일반질환
	나재윤	금	금	소아심장
신경과	이영주	화, 금	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럼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화, 수	뇌졸중, 손저림, 두통, 말초신경병증,하지불안증후군
	고성호	월, 화, 수,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3,5주)	월, 화(3주), 목	치매, 뇌졸중, 두통
	권혁성	수, 토(1,2,4주)	월, 수, 금	뇌졸중, 두통, 뇌전증, 어지럼증, 수면장애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화(보건소치매), 수,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홧병, 우울증
	김대호	화, 목, 토(1,5주)	월, 화, 금(클리닉)	PTSD, EMDR, 불안장애
통증심리클리닉▲	최준호	월, 수, 금, 토(3주)	수	신경영상학, 조현병, 조울증
	김일빈	월, 화, 토(2주)	수, 금	일반정신의학, 노인정신의학, 치매, 인지기능 장애
신경외과 척추신경외과클리닉▲	김재민	수, 목, 토(2주)	월	뇌종양,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정진환	월, 토(3주)	화, 목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두부외상
	류제일	화, 수, 토(5주)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두부외상
	한명훈	월, 금, 토(1주)	수	뇌종양, 뇌정위기능, 두부외상, 방사선수술
	원유덕	화, 금, 토(4주)	수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두부외상
흉부외과	노선균	화, 금	수,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장맥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수	월, 목	흉강경 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월, 수, 금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태수	월	수, 금	견관절
	박예수	수, 금, 토(2주)	월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수, 목, 토(3주)	화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월	화, 금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 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양재혁	화, 목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 손상
	조영훈	화, 토(1주)	월, 목	견주관절, 스포츠 손상, 회전근개 질환 골절 및 외상
	문준기	월, 화, 토(4주)	금	
	강병직	금	월	정형외과 일반
	김준국	목, 토(5주)	화	정형외과 일반
산부인과	류기영	월, 화, 목, 토(1주)	화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정언석	수, 금, 토(3주)	월, 수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혹, 자궁혹), 부인암, 고위험산모
성형외과	이장현	월, 화, 토(1주)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암, 유방성형, 침샘종양, 미용성형
	장정우	수, 금, 토(3,5주)	월	미세수술, 당뇨족, 욕창, 안면외상, 미용성형
	정재아	목, 토(2,4주)	화, 금	유방성형, 흉터성형, 당뇨족, 미용성형
외과	이홍기	수, 금	월	혈관(대동맥 경동맥 족부괴사, 당뇨발), 이식, 간담췌질환 탈장
	박훤경	월, 목	화	간담췌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췌질환
	김민규	화, 금	수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김형석	월, 목, 토(1,2,3,4주)	화	유방, 갑상선질환
	이준호	수	월, 수	대장항문
	김현일		목	중환자, 외상
	조유정	화, 수	금	소아외과
안과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강민호	월, 토(1,3,5주)	화, 금	
	신용운	월, 금, 토(2주)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임한웅		화(3주)	
	이정욱	수, 목, 토(4주)	목	성형안과, 일반안과, 백내장
	박승훈		월, 금	망막질환 및 일반안과
피부과	김정수	월, 목, 토	월, 화	여드름, 주사, 소아피부질환, 피부종양 및 사마귀성 질환, 건선
	서현민	화, 수, 금	수, 목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접촉피부염, 백반증, 자가면역질환, 피부외과, 피부감염
	박형권	수	월, 금	일반 피부질환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토(5주)	수	부비동염 비중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토(3주)	화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정재호	금, 토(2주)	월, 수	어지럼증, 이명, 난청, 중이염
	김형규	수, 목, 토(1주)	월, 금	부비동염,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강태옥	화(4주)	화, 목, 금	이과, 두경부질환 및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김경래		수	수면클리닉
비뇨의학과	최홍용	화, 목	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3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종양, 남성과학, 복강경수술
	김규식	월, 토(2,4,5주)	목	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장성호	월, 금	월, 수	근골격계,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발걸음클리닉▲	한승훈	화, 수, 목	화, 목	근골격계재활(오십견, 요통, 관절염, 목통증, 발통증), 스포츠 의학, 소아재활, 뇌신경재활, 삼킴장애
관절재활 클리닉●	박재현	월	금	근골격계재활, 일반 재활의학과 질환, 운동치료(목통증, 어깨통증, 허리통증, 무릎통증)
치과	박원희	월~목, 토(2,4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 질환
	김윤영	화, 금, 토(1,3,5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핵의학과	이수진		수	종양핵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장태원		화	직업성 질환,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영상의학과	김응태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인터벤션시술
통증클리닉	심재항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생명 지킴이 입니다



am 0:30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온 국민이
완치되는 그 날까지

한양대학교병원 음압 병동
김현주 간호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외로운 싸움이 이어지는 음압 병동.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방호복을 입은 음압 병동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보호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곳에서 자신의 손길이 환자들에게 큰 희망임을 매순간 잊지 않는다는 김현주 간호사. 환자들에 대한 그의 다정함과 성실함이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완치를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안녕하세요, 선생님

슬기로운 안과 의사, 그가 밝히는 길과 지도

강민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교수

누군가 바지런히 걸은 곳은 길이 된다.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걷고, 뒤따라오는 이들을 살뜰히 안내하는 선배의 마음은 후배들에게 지도가 된다. 안과 의사 강민호가 걷는 길은 바람직한 지도가 되어 더 많은 이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글. **권찬미** 사진. **김지원**

"〈능하신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환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수술하는 의사의 모습이 담긴 그림인데요. 대학 시절 한 창 전공 선택을 고민할 때 이 그림을 보고 '현미경을 이용해 환자의 눈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에 매료된 강민호 교수는 '현미경을 이용해 수술하는 안과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마침 전공의 시절 만난 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과 송병주 교수는 그의 눈에 들어온 하나의 길이었다. 그렇게 안과 의사의 길에 접어든 지 전공의와 펠로우 기간 포함 19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2011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10년 차에 이른다.

어두운 눈을 밝히는 능한 손

안과는 진료과 특성상 드라마틱한 수술케이스가 많다. 그중에서 그가 기억하는 환자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만난 환자였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수술 후 각막 부종이 찾아와 수포성각막병증으로 각막 기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제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와서 처음으로 맡은 각막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당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각막이식수술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첫 각막 수술 사례이며, 환자에게는 남은 인생의 시력이 달린 의미 깊은 수술이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환자분께서 건강한 시야를 회복하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이제는 여든이 넘으셨는데요. 아직도 6개월 주기로 꾸준히 내원하십니다. 내원하시어 건강하게 눈을 맞출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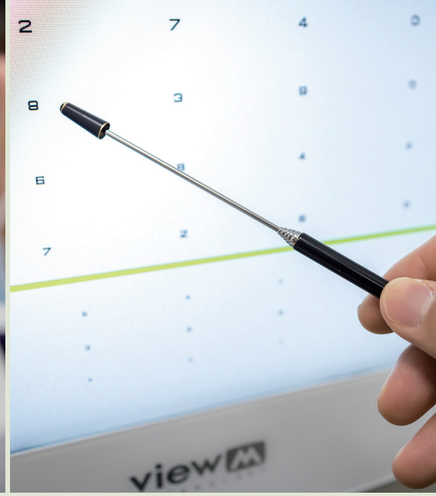
그가 꿈꾸는 배움의 길과 지도

강 교수는 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의료 기술을 잘 전하는 좋은 의사다.

“의사라고 하면 타고나야 한다는 선입견이 많아요. 수술을 잘하려면 타고난 손 기술이 좋아야 한다는 편견도 있달까요. 하지만 저는 수술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과 수술은 모두 현미경을 보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술 시 손의 움직임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로 손의 고유 감각을 믿고 움직이며 수술하죠. 이 단계에서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전공의들이 좌절하기 쉬운데요. 전공의들이 학습을 통해서도 수술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2018년 대한안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비디오상을 수상한 강민호 교수. 수상한 영상은 〈초보자를 위한 백내장 수술에서 수술 현미경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전공의들이 더 쉽게 수술을 배울 방법을 고민하다가 제작했다. 일반적으로 학술자료로 사용되는 비디오는 눈과 수술 도구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으로는 수술을 훈련하기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에 진료팀과 함께 의논해 손까지 나오는 영상 학술자료를 제작했다.

“안과 수술은 모두 현미경을 보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술 시 손의 움직임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로 손의 고유 감각을 믿고 움직이며 수술하죠. 이 단계에서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전공의들이 좌절하기 쉬운데요. 전공의들이 학습을 통해서도 수술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학술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는 강민호 교수는 미국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대학에 1년여의 연수를 떠났다가 ‘원추 각막 질환’에 대한 연구 모델을 만들고 지난 3월 돌아왔다. 국내에서도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발병하는 원추 각막 질환은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앞으로 제 목표는 원추 각막 질환에 대한 동물실험 모델을 2~3년 안에 잘 마무리 지어서 실제 수술적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후배들을 위한 운동학습 연구를 체계화해 더 좋은 학습적 자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료하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능한 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연을 넓히며 부지런히 완성 중인 그의 지도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의 앞길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